

2023학년도 1학기

# 상명 엑스퍼트 공모전

Part 1. 내가 수강한 우수강의 공모전

Part 2.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SANGMYUNG

교수학습개발센터

# Contents

## Part 1. 내가 수강한 우수강의 공모전

01

최우수상\_인공지능,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조형예술전공 20학번 **박주연** | 1

02

우수상\_영락없던 그 강의

문헌정보학과 23학번 **김은경** | 4

03

우수상\_초보자를 위한 그림 AI 프로젝트 강의!

조형예술전공 18학번 **노채연** | 13

04

장려상\_읽고, 씹고, 맛보는 국어 교육

국어교육과 21학번 **이혜림** | 21

05

장려상\_강의를 통해 배운 살아가는 방법

글로벌경영학과 23학번 **오도연** | 27

06

장려상\_독수리 타자 치던 내가 코딩을?

생명공학전공 21학번 **윤한서** | 34

# Contents

## Part 2.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01

최우수상\_결국 인생은 장기전,  
인생을 뒤바꿀수 있는 생활습관과 학습법

컴퓨터과학과 22학번 이채원 | 41

02

우수상\_어쩌면 가장 쉬운 1등, 45%

생명공학전공 18학번 김민우 | 52

03

우수상\_반복하며 이해하는 성실한 학습전략

경영학부 22학번 김유림 | 61

04

우수상\_Chat GPT랑 같이 게임 제작 동아리 활동하기

게임전공 21학번 강문석 | 68

05

장려상\_A부터 Z까지, 키워드 분석을 통한 스마트한 공부 비법

행정학부 18학번 김의중 | 74

06

장려상\_튜터와 튜티 모두가 성장하는 '상명튜터링'

지능데이터융합학부 22학번 신지우 | 82

## 인공지능,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조형예술전공 20학번 **박주연**

### 기획 의도

4학년 1학기, 졸업을 앞둔 재학생으로서 보내는 마지막 학년. 앞으로 학교에 다닐 날은 1년도 채 남지 않아 이번 학기에 들은 수업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교양이 아닌 전공 수업임에도 타전공 학생들과 함께 수강했으면 좋겠다는 우수강의가 있어 해당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기반한디지털콘텐츠제작기법>은 인공지능의 역사와 종류 등의 개괄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고 인공지능 생성 모델을 직접 활용하고 훈련하여 팀 프로젝트 수행하는 강의입니다. 해당 강의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전공 학생들과 함께 진정한 융합 강의를 수강하고 협동을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공생으로서 인공지능이 미술계에도 점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만큼 해당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공지능에 의한 지배가 아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도구 사용하는 귀한 첫걸음의 장이었습니다. 이렇듯 전공생과 타전공생 모두가 본 강의를 통해 융합 인재로서의 면모를 지닐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여 추천하게 되었고, 영상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상명에서 초성을 따와 ‘ㅅ’, ‘ㅍ’ 형태를 기반으로 제작하였고, 딱딱하게 전개되지 않도록 대화 형식을 사용하여 공감대를 끌어내고 재밌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 아래 사진은 주요 장면 편집본이며, 영상의 원본은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상형 엑스퍼트 공모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지 않려드릴까요!  
 참가 : 수강생, 우수강의팀, 소경팀/소경님

**선박한 콘텍스트를 줌 Prompts**

Character illustration of a girl in a party room.  
 A large table with various colorful desserts, tea, biscuits, a big cake, and a large forest, with a host and guests and much engaging and change behavior in the middle of the party room.

**영상 생성 결과**

그렇게 뽑아낸 prompt들과 이미지들은 발표를 통해 공유했는데, 다른 사람이 한 과제를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어!

**상형 엑스퍼트 공모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지 않려드릴까요!  
 참가 : 수강생, 우수강의팀, 소경팀/소경님

**팀프로젝트를 통해 훈련시킨 영상 생성 모델**

원하는 이미지를 묘사하는 문장을 통해 생성된 / 묘사는 이미지를 넣어 생성된

**캐릭터**      **풍경화**      **초상화**

원하는 이미지를 묘사하는 문장을 통해 생성된 / 묘사는 이미지를 넣어 생성된

원하는 이미지를 묘사하는 문장을 통해 생성된 / 묘사는 이미지를 넣어 생성된

근대 팀프로젝트는 어떤 걸 하는 건데?

**상형 엑스퍼트 공모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지 않려드릴까요!  
 참가 : 수강생, 우수강의팀, 소경팀/소경님

대리인 문제, 관리자 방문 수계(CoBot), 구글 콜라보, Stable Diffusion, 수문 이미지 활용

**Google Colab, Stable Diffusion 모델과 수문 이미지 활용한 모델 훈련 진행**

걱정 하지만, 모델 훈련에 앞서서 프로젝트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배우니까,

**상형 엑스퍼트 공모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지 않려드릴까요!  
 참가 : 수강생, 우수강의팀, 소경팀/소경님

**PART 2: AI Art Model 훈련 결과**

만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는데, 교수님과 조교님이 도움이 많이 주신다니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상형 엑스퍼트 공모전** 전 이어서 이 수업이 좋았어!  
 1. 교수님과 조교님이 특이한 질문을 통한 학습 및 도전

조교님      교수님      조교님

낯설고 어려운 분야임에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돼서 좋았어.

**상형 엑스퍼트 공모전** 수업을 통해 얻은 생각은 다음과 같아!  
 2. 새로운 콘텐츠 생산 방법 이해

캐릭터      원문 배경      일러스트      디자인      풍경화

이걸 더 발전시켜서 아예 내 캐릭터를 만들고 응용하는 모델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

**상형 엑스퍼트 공모전** 큰 박이었던 수업들 듣고 난 소감을 말해드릴까요!  
 참가 : 수강생, 우수강의팀, 소경팀/소경님

다들 인공지능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낯설고 어려워서 어떻게 다가갈지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까지 한 번에 해볼 수 있는 강의였음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팀프로젝트를 진행해볼 수 있어 좋음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바로 인공지능 모델 훈련으로 들어갔더라면 조금 부담스러웠을텐데 우선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보면서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음

우선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보면서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 출처 : 박금대통령 (아기의 하루, 아주꾸임, 알콩달콩)

# 영락없던 그 강의

문헌정보학과 23학번 **김은경**

\*영락없다 :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 꼭 들어맞다.

## 교과목 설명

### 1. 강의의 기본적인 정보

내가 소개할 우수강의는 스포츠 건강관리전공 소속이신 **박진경 교수**님의 ‘**다이어트와 건강**’이다. ‘다이어트와 건강’은 일반교양 3학점 과목이다.

### 2. 교과목 목표 및 주차별 수업내용

먼저 교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한 통합형 건강 관리 방안을 알아보고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즉 오늘날에 두드러지는 체형의 양극화 현상이나 비만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 문제, 잘못된 인식과 정보로 인해 무분별한 다이어트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다이어트 시에도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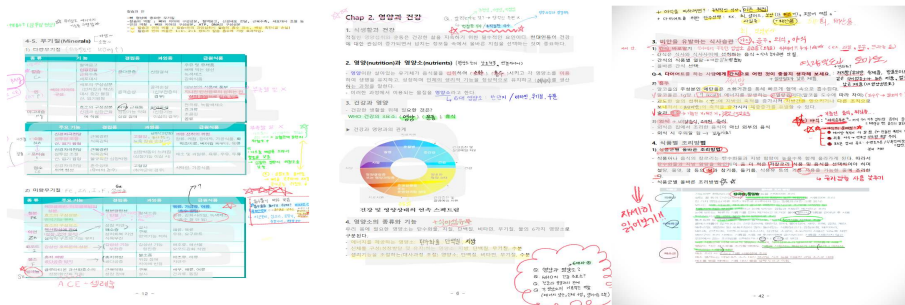


그림1. 수업 자료의 일부이며, 저작권 문제에 대피하여 자료 사진을 편집하여 첨부함.

## 수강하게 된 이유

내가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된 이유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 생활을 끝내고 나에게 가장 시급했던 건 다이어트였다. 그 당시 나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 많은 것들을 공부 시간과 맞바꿔 지내던 시절에서 막 벗어난 학생이었다. 그렇기에 지방은 3년 동안 나의 몸에 차곡차곡 쌓여서 일심동체가 되었고, 12월이 되어서야 ‘지방과의 작별 인사 대장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이 나는 매우 기뻐지만, 막상 다이어트를 다짐하니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 어떻게 식단관리를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에 그 실마리를 인터넷에서 찾고자 했지만, 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데에 급급했다. 정보가 많다고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다만 스스로 정보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조건만을 토대로 선택한다면 합리적인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나는 조건의 우선순위를 따지지 못할 만큼 지식도 갖추지 못했고 무지했다. 이러한 나의 모습에 심각성을 느꼈고 적확하고 올바른 다이어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 하던 차에, 수강 신청을 위해 교과목을 살펴다 놀랍게도 내가 원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목인 ‘다이어트와 건강’을 발견하여 수강하게 되었다.

## 우수강의 선정 이유

‘다이어트와 건강’을 우수강의로 선정한 이유는 총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나에게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수업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수업이 지루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신 교수님의 세심함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이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 내용에 이어진다. 이러한 능력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상명대학교 모든 학우에게 이 수업을 듣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 1. 나에게 직접 적용해보는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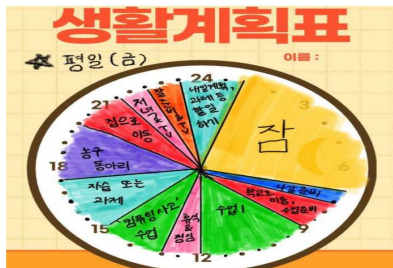
이 수업은 수업에서 배우는 개념이나 공식 등을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현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자주 주어졌다. 처음 건강 체중에 대한 개념을 배우면서 건강 체중 기준과 표준체중법 등을 공부했는데, 이때 자신의 키와 체중을 대입해보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건강 나이를 계산해보고 영양 생활습관을 평가하거나 식사 균형을 간단히 알아보면서, 영양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이외에도 식사요법을 배운 뒤에 평일과 주말 식사 일기를 작성하고 에너지 섭취량을 구하거나, 운동요법을 배운 뒤에 평일과 주말 운동 일기를 작성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구해서 에너지 균형상태를 확인하는 과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교수님은 '수업 때 아니면 식단일기나 운동 일기를 작성해서 에너지 균형상태를 확인해볼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나는 위와 같은 시도가 처음이라 매우 낯설었다. 처음 과제 수행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먹었는지, 어떤 행동 습관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하므로 꽤 번거로운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보고 난 뒤 어떤 행동이 건강에 해로운 행동인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나에게 직접 적용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보다 많은 걸 먹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식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덕분에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인 내용만 배우고 넘어갔다면 수업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수업내용을 따라잡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지만, 위 과정이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이 나의 배움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에너지 소비량 구하기 (평일/ 주말 나누어서 계산)**

**1. 평일의 에너지 소비량 구하기**

• 활동일지



▶ 자신의 총 에너지 소비량 계산하기  
 • 성별 (남), 체중: 55kg, 수면시간: 6시간 (활동시간: 17시간)  
 ① 기초대사량:  $0.9 \times 55 \times 24 = 1,188 \text{ kcal}$   
 ② 활동대사량: 834.625 kcal  
 A 활동: 음식, 빙파자 (FV 등)  $4.5 \times 0.5 \times 55 = 123.75$   
 B 활동: 이론학사 준비활동 등  $5 \times 0.59 \times 55 = 132.515$   
 C 활동: 과제 또는 수업 등  $4.5 \times 0.79 \times 55 = 325.815$   
 D 활동: —  
 E 활동: 복귀운동기  $1.5 \times 1.69 \times 55 = 139.425$   
 F 활동: 출구계단  $1 \times 2.4 \times 55 = 132$   
 ③ 총 에너지 소비량: 202,262.5 kcal (반환)  
 ④ 총 에너지 소비량:  $1188 + 834.625 + 202.2625 = 2224.9 \text{ kcal}$

+ 에너지 필요 추정량 (평일)

▶ 에너지 필요 추정량 (평일) PA: 저활동적  
 여자:  $354 - 6.91 \times 18 + 1.12 [9.36 \times 55 + 726 \times 1.53]$   
 남자

**2. 주말의 에너지 소비량 구하기**

• 활동일지



▶ 자신의 총 에너지 소비량 계산하기  
 • 성별 (남), 체중: 55kg, 수면시간: 7시간 (활동시간: 17시간)  
 ① 기초대사량:  $0.9 \times 55 \times 24 = 1188 \text{ kcal}$   
 ② 활동대사량: 614.9 kcal  
 A 활동:  $5 \times 0.5 \times 55 = 137.5$

**평일 (2023.13/20)**

2) 에너지일지형: 식사일기(Chap. 3-주중, 주말)

식사	음식명	재료명	섭취량(측량량)	열량수 (열량/kcal)
아침	X			
점심	- 냉동콩류밥 (구우밥) (250g) - 한끼밥	- 콩과 야채 - 백미밥	- 한접시 - 한공기	- 위열 (냉동, 콩류 등) [단추, 단추열] - 한 수화물 등 → 총 열량 385 kcal
저녁	- 오카이지 김치찌개 - 모듬모미 갈	- 고춧가루, 김치, 돼지고기, 식용유 등 - 모듬모미	- 한그릇 (약 150kcal) - 한공기 (300kcal)	- 고기 → 단추열 [단추, 비터인 C, 등] - 식열 (냉동) - 단추열, 비터인 B 등
간식	- 유칼러스 사탕	- 포도당시럽, 쿠키 등	- 1개 (43kcal)	- 지방 등

▶ 평일의 에너지 섭취량?  
 : 점심 385 kcal + 저녁 450 kcal + 간식 43 kcal = 878 kcal

그림2. 10주차 과제로 제출했던 '에너지 섭취량 및 소비량 구하기, 에너지 균형 조사하기' 자료 중 일부. 수업 때 배운 계산법을 활용하는 과제.

**2. 지루할 틈 없는 수업**

이 수업을 '지루할 틈 없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총 세 가지다.

첫 번째, 다양한 관련 정보원과 연계되는 수업. 수업 중간중간에 수업자료의 출처를 소개해주시면서 한국영양학회, 식품안전나라 등의 유용한 사이트를 알려주셨다. 즉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보도 스스로 습득하도록 소개해

주시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해주셨다. 이를 통해 단순히 수업 시간을 채우기 위한 수업이 아니고 시험을 위한 수업도 아닌, ‘인생 전반에서 오늘의 수업내용을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을 하신다는 게 몸소 느껴졌다.

두 번째, 교과목 관련 전문가 특강. 중간고사를 치른 직후에는 수업에 집중하기가 더 힘들었지만, 대한비만학회 운동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운동처방 전문가의 특강을 들으며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한양대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신 석민화 교수님께서 비만과 관련된 질환과 운동 방법, 운동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강의해주셨다. 다음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배우기도 하고, 이와 연결해 질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뜻깊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변화를 주어서, 학생들의 집중도를 고려해 수업을 진행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 빈칸 채우기 수업 방식.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수업 방식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분들의 수업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수업 자료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채우기 위해 수업에서의 집중력을 놓지 않을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매우 강조하는 부분은 반복해서 빈칸이 제시돼 있어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었다. 또한 시험문제 중 일부 문제가 빈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시험공부를 할 때도 핵심을 파악하며 공부하기가 수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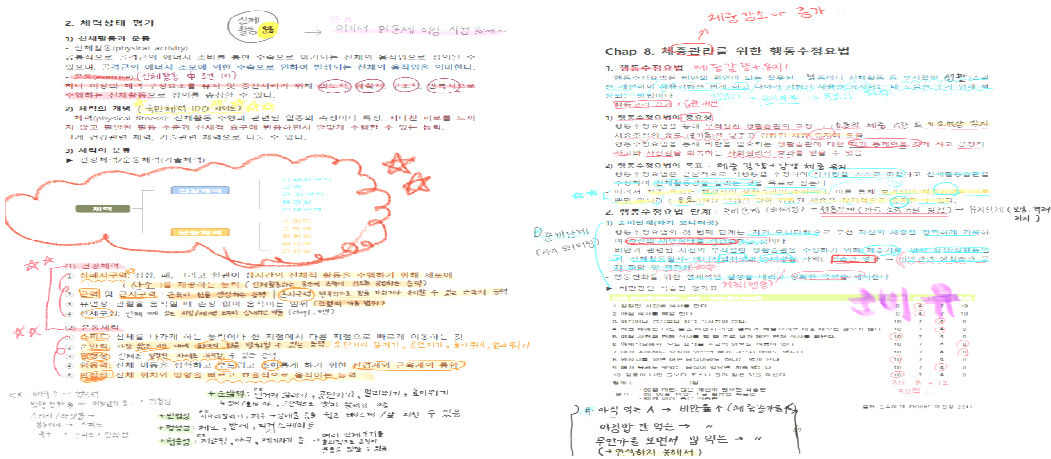


그림3. 빈칸을 채운 수업 자료 중 일부. 저작권 문제로 사진을 편집하여 첨부함.

### 3.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수업

‘다이어트와 건강’에서는 1차·2차 체력측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 몸 상태를 점검해볼 수 있다. 기본적인 체지방량, BMI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부위별 지방량과 근육량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근지구력이나 유연성 등의 체력 요소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부족한 요소는 보완하고, 자신이 가진 장점은 유지하도록 운동 계획을 점검할 수 있다.



만 하면서 ‘이게 과연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체력측정을 통해서 나의 몸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고, 건강 체중에 맞게 체지방과 몸무게를 차근차근 줄여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운동을 꾸준히 하더라도 몸무게가 변화하지 않을 경우, 눈으로는 관찰할 수 없었던 근육량의 증가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추가로, 교수님께서 체력측정 결과 ‘BMI는 정상이거나 저체중이지만, 근육량이 부족한 마른 비만이 생각보다 많다.’는 문제점을 덧붙여 설명해주셨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체력측정을 해야만 보이는 문제점도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를 통해 직관적으로 근육량 부족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수업이 나에게 끼친 영향 및 변화

위 수업이 나에게 끼친 영향력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목표 달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올바르게 정확한 다이어트 지식을 배워서 나의 삶 전반에 활용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업을 듣게 되었다. 나의 목표는 교과목의 지향점과 같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수업을 들으며 최종적으로는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비록 본격적인 시작은 늦었지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다이어트 지식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나의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이 변화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다이어트와 건강’은 나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식습관의 변화. 수업이 변화시킨 나의 모습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식습관이다. 과거에는 먹는 행위를 귀찮은 일로 여겨왔기 때문에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았으며, 먹지 않을 때는 아예 안 먹다가 먹을 때는 몰아서 많이 먹는 매우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수업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식사 습관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의 식습관이 나에게 무척 해로웠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후 천원의 아침



그림5.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매일 챙겨 먹은 아침 식사

밥 사업을 활용해서 아침밥은 최대한 챙겨 먹으려고 했으며 몰아서 과식하는 습관은 버렸다. 이외에도 영양 성분표를 활용해 나에게 적합한 음식을 찾아서 먹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으며, 식단

앱을 활용하여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찾아내어 영양소 균형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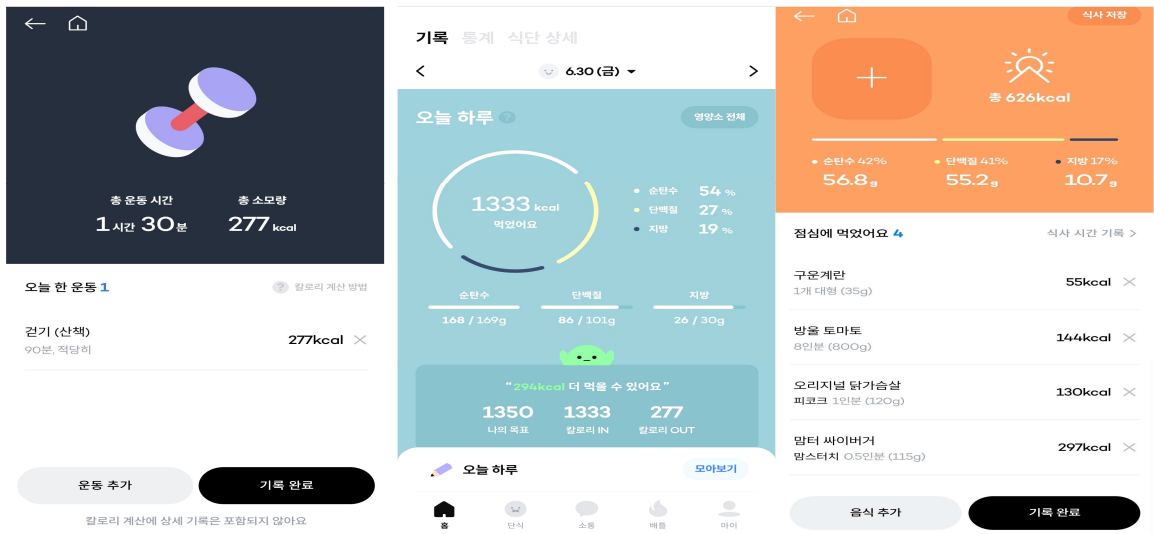


그림6. 실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트 관리 앱 '인아웃'. 이 앱을 통해 식단·운동 일기를 작성하고 있음. 앱을 이용하면 더욱 철저하게 식단·운동을 관리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고 해당 앱을 사용한 지 2주 동안 총 2kg를 감량함.

세 번째, 운동량/활동량의 변화. 수업에서 유산소와 근력운동의 병행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사실과 FITT-VP를 배우고 난 이후에는, 점진적인 운동 강도 증가·균형 있는 운동의 중요성 등을 항상 상기하며 운동하게 되었다. 특히 나는 매번 과하게 운동 목표를 설정해서, 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꾸준히 하는 운동이 가장 좋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꾸준히만 하자'는 목표를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매일 운동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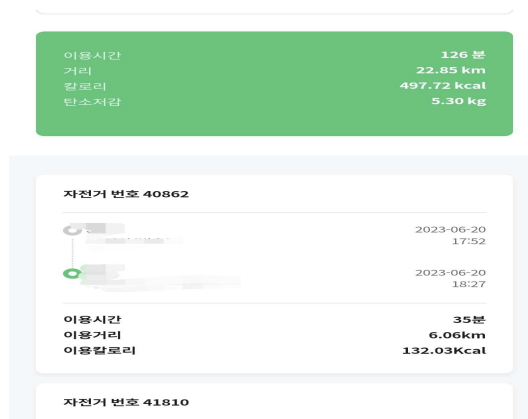


그림7. 따릉이 대여반납이력. 운동을 위해 자전거를 탈 때도 많았지만 출퇴근시 이용하면서 NEAT 다이어트를 실천하기도 하였음. 따릉이와 개인 자전거를 함께 이용하여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고 있음.

네 번째, 생활 습관의 변화. 나는 원래 집에 있는 음식이 눈에 띄면 아무 생각 없이 먹었고,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먹는 걸 권하면 먹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음식 섭취에서의 나만의 가치관이 생겼고 기준이 생겼다. 영양성분표를 따져보며 신중하게 내가 먹을 음식을 고르는 습관을 길렀고, 나의 목표가 명확하기에 음식 섭취에서의 내 의사가 뚜렷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남들에게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변화이고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마치 조종당하기만 하던 로봇이 자의식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표출하는 것과 유사하다. 나는 무지했기에 주어진 환경에서 그저 순응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생활 전반에서의 자유의지를 얻었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발전이다.



그림8. 영양성분표 확인 후,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저지방우유나 무지방우유 음용.

## 강의에 대해서 느낀점 (소감)

이 수업은 내가 처음으로 올바른 다이어트를 배울 수 있었고 교과 목표에 매우 충실한 수업이다. 어떻게 보면 교과 목표에 충실한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교수님의 섬세한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미 말했듯이, 교수님께서도 진심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를” 바라셨다. 그렇기에 학생들에게 더 쉽고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셨고, 그 섬세한 노력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첫 대학교 수업이었기에 다른 수업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배우는 시간이 흥미로웠고 재미있었다는 사실에는 반박할 수 없다. 그냥 그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 재미를 느끼고 나의 생활에 적용해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일부가 변화했고, 자연스럽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2023 | 1학기 | 다이어트와건강 | HALF9281 | 1 | 교선 | 3 | A+

그림9. 배운 지식을 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었고 운이 좋게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음.

또한 교과목을 공부하면서 먹는다는 행위 자체에서의 참뜻을 느낄 수 있었다. 영양소 균형을



## 초보자를 위한 그림AI 프로젝트 강의!

조형예술전공 18학번 노채언

### 미대생도 AI를 다뤄야 하는 시대가 왔다!

내가 입학할 때만 해도, 미술과 공학은 물과 기름 같은 학문이었다. 미대생=문과생, 그리고 수포자(수학포기자)가 하나의 공식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미술계에서 이 공식은 완전히 깨져버렸다. 멋지고 화려한 그림을 1초 만에 똑딱 그려주는 AI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작년 2022년 9월, 미국에서 디지털 아트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대회가 열렸다. 여기에 제이슨 앨런이 Midjourney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한 AI 그림을 제출하였고, 대상을 수상했다. 주최 측은 그 그림이 AI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상을 주었기에 더욱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그림 AI는 계속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점점 상용화되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엔 네이버 웹툰에 AI를 사용한 웹툰이 논란 속에 연재를 시작했으며, 같은 달에 킨텍스에서 열린 2023 Art Expo에서 AI 그림이 약 1천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

난 이 뉴스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AI 기술들이 현재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니, 미래 미술계에 무조건 쓰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닫고 불안해졌다. 난 AI 기술에 대해 하나도 아는 게 없다는 것이었다! 어디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그 때 구세주 같은 수업이 나타났다. 분명 입학할 때 커리큘럼에 없었던 수업이 전공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보였다. 그렇게 난 홀린 듯 AI그림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수업인 <인공지능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기법>을 듣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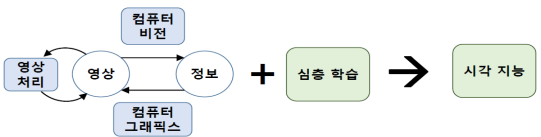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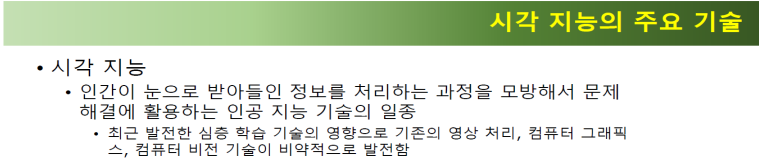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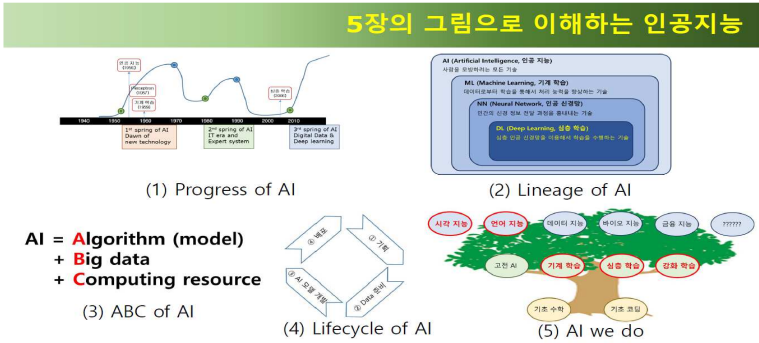
## <인공지능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기법>은 어떤 수업인가요?

먼저 이 수업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조형예술전공의 전공선택 수업이지만 컴퓨터과학전공과의 융합수업이다. 담당교수님은 총 두 분으로, 민경하 교수님, 양희경 교수님이 맡으셨다. 두 분 다 융공대 소속 교수님들이다. 인공지능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보고 그에 따른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표인 강의이다.

이 수업은 AI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1부 수업, AI 모델을 직접 사용해보는 2부 수업, AI 그림 모델을 직접 만들어보는 3부 수업, 총 3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다. 프로그래밍, 아니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차근 차근 단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실습을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1. 이론 (1~5주차)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미대생들이 대다수이다. 그래서 강의 초반 6주차까지는 AI의 개념, 근 100년 간의 발전 역사와 발전하는 학습 방식 등을 배우는 기초 이론 수업을 한다. AI 실습을 기대하고 왔다가 5주 동안 강의만 듣고 있으니, 조금은 지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이론 수업은 AI 초보 사용자들에겐 매우 필수적인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실습과 프로젝트까지 완벽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준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2. 영상 검출

- 영상/객체/물체 검출의 예 (2): CCTV 감시



이론 수업의 강의 자료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셨다. 한 번도 공부한 적 없는 컴퓨터 관련 용어들이기에 처음엔 굉장히 낯설었고, 심지어 영어가 많아서 거부감도 들었다. 그러나 다양한 비유, 예시와 함께 그래프와 도식을 사용해주시어서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교수님은 글이 아닌 그림으로 학생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해 주셨다. 또한, 생소한 개념들이 나오면,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셨다. 특히 현재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들 (CCTV, 위성 사진, 사진 편집 기술 등)을 예시로 들어주어서 더욱 이해하기 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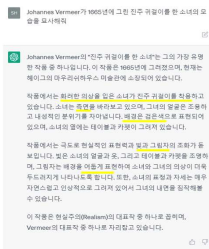
2) 실습 (6~9주차)

이론 수업으로 AI가 무엇인지 알게되면, 그림 AI를 직접 사용해보는 실습을 한다. 그림 생성 AI의 종류와 사용법을 배워서 직접 그림을 생성해본다. 그리고 AI 강의답게 과제를 할 때 여러 AI를 쓰게 하셨다. 그림 AI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Chat GPT도 사용하게 만드셨다.

8. 베르메르 -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요하네스 베르메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1665-1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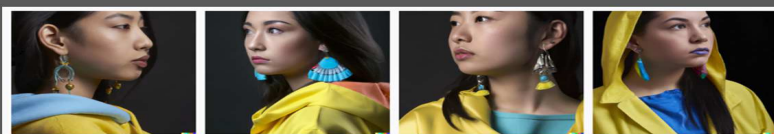
8. 베르메르 -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화려한 의상을 입은 소녀가 진주 귀걸이를 착용하고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 배경은 검은색으로 어둡게 하여 파란 두건과 노란 옷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A girl dressed in a vibrant outfit wearing pearl earrings looks side ways. The background is darkened to highlight the blue hood and yellow clothing even 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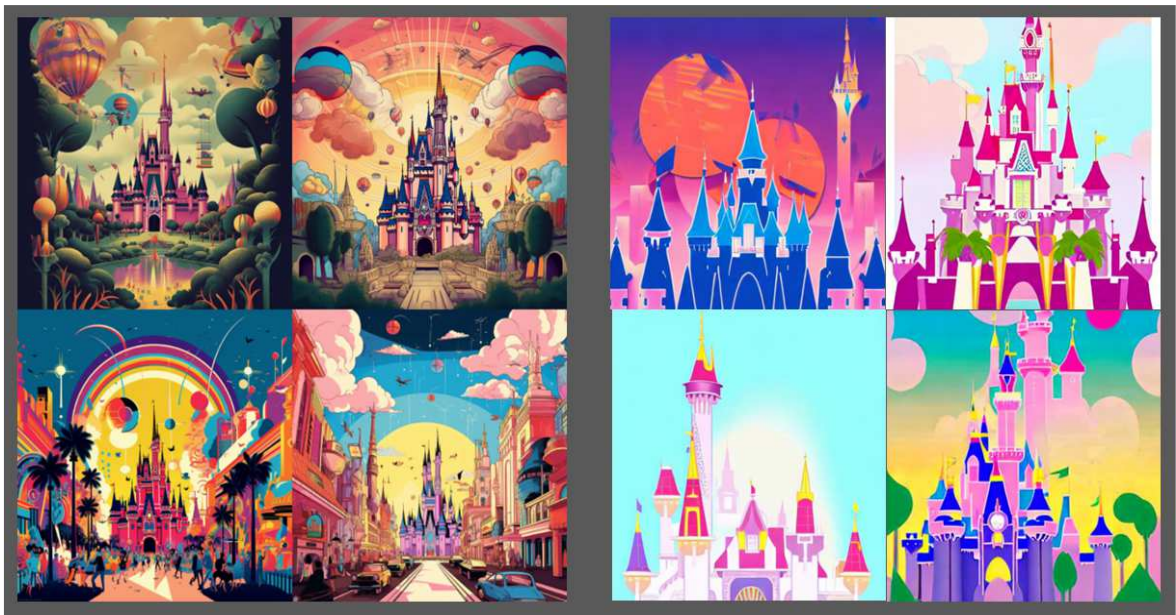
8. 요하네스 베르메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 AI 영상 생성 - Dall E 2



첫 번째 과제는 명화들을 AI를 이용해 재현해보는 것이었다. 먼저 그림 생성을 위한 키워드인 ‘prompt’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조건 ‘Chat GPT’를 사용하게 하셨다. Chat GPT에게 그림 설명을 부탁하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까지 맡겨야 했다.

그러나 가끔 Chat GPT가 엉뚱한 설명을 종종 했다. 예를 들어, 위 명화에 대한 설명을 얻기 위해 그냥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입력을 하면, 그림이 아닌 진짜 진주 귀걸이를 한 어떤 소녀의 외형을 지어내어 묘사한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림의 유형과 제작 연도, 그리고 작가까지 질문에 몇 가지 정보를 더 언급해주어야 한다.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1665년에 그린 작품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입력을 하면, 위 명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해준다. 정보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부족하면 그 똑똑한 AI들도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 과정을 통해 AI에게 명령을 내릴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명화에 대한 prompt를 그림 AI로 생성해보았다. 아래 그림은 ‘Dall E 2’라는 그림 AI 모델을 통해 생성한 것들이다. 의상과 그 색깔들, 그리고 소녀의 구도까지 정확하게 잡아주는 prompt를 입력한 덕분인지, 기존 명화를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위 사진의 그림들은 두 번째 과제에서 만들어본 AI 그림들이다. “꿈 속 세계의 디즈니 월드를 표현한 팝아트풍 책표지”를 AI를 통해 생성해보았다. 첫 번째 과제처럼 Chat GPT를 이용해 영어로 번역을 하였고, 수업시간에 배운 그림 AI 모델 종류 중 ‘Midjourney’(왼쪽)와 ‘Runway ML’(오른쪽)을 통해 생성해보았다. Midjourney 모델은 화면 구도가 안정적이며 전체적으로 어색한 부분 없이 훌륭한 일러스트를 그려주었지만, Runway ML은 다소 평면적인 그림에 피사체도 중앙에 있지 않고 불안정하다. AI모델 마다 특유의 그림 스타일과 개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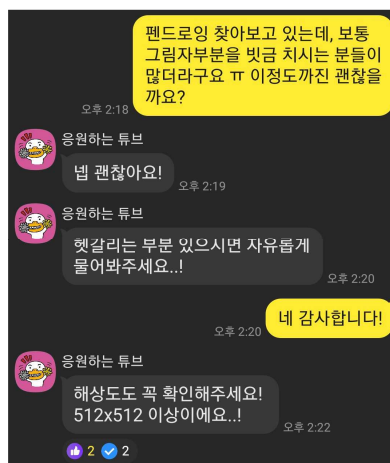
앞에서 사용한 그림 AI인 Dall e 2, Midjourney, Runway ML 외에도 Nightcafe, Stable Diffusion 등 다양한 그림 AI 모델로 그림을 직접 생성해보았다. 이론으로만 공부하다가 직접 영상을 생성해보니 정말 재미있었고, 덕분에 그림 AI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 3) 프로젝트 (10~16주차)

이 수업의 하이라이트이자 최종 목표 파트다. 앞에서 사용해본 그림 AI를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였다. 4인 1조로 팀을 구성했고, 우리 팀의 목표는 도시 영상에 대한 연필 드로잉 스타일의 스케치를 생성하는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림 AI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프로그래밍과 개발을 직접 해보는 것은 또 달랐다. AI 훈련 도중 생각보다 오류가 자주 생겼으며,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이 생성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교수님은 모든 조에 구원투수, 대학원생 멘토분들을 한 분씩 배정해주셨다.



위 사진은 우리 팀원 단톡에 초대되어서 질문에 답해주시는 멘토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 AI를 만들려면, 그 스타일의 그림들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또 고

화질이고 다양한 구도의 고품질 그림들이 필요했다. 은근 조건이 까다로웠다. 그래서 이미지 수집부터 해매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조언과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무사히 적합한 이미지들을 충분히 모을 수 있었다. 우리 조는 총 약 120장 정도의 이미지를 수집했다.

이제 그 이미지들을 AI에 학습시켜야 한다. 수업에서는 Stable Diffusion 모델을 사용했으며, Dreambooth 방법으로 열심히 모은 데이터들(이미지들)을 학습시켰다.

영상생성 기본모델(v1-5-pruned-emaonly.ckpt) 과 학습시킨 모델(usk.ckpt) 비교

결과 - 학습시킨 모델 (usk.ckpt)

1) txt → img

Prompt

usk, usk lineart

>> 선이 비교적 얇고 좀 더 원근감도 느껴짐.



영상생성 기본모델(v1-5-pruned-emaonly.ckpt) 과 학습시킨 모델(usk.ckpt) 비교

결과 - 학습시킨 모델 (usk.ckpt)

2) img → img

Control Net



Control Net + Prom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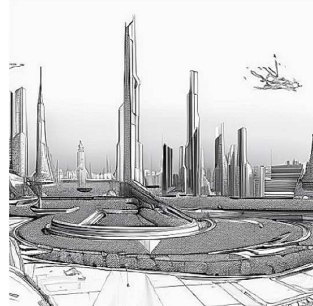
line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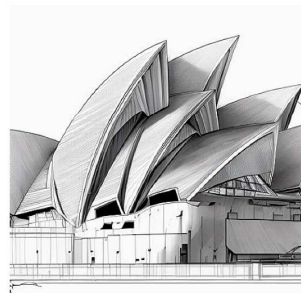
이론 수업에서 배운 것만을 이용하여 그림 AI 모델을 훈련시켰고, 위 사진들은 그 훈련이 완료된 모델을 이용해 생성한 그림들이다. 선이 얇고 스케치풍의 그림 스타일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나왔지만, 선이 굉장히 지저분했고 자꾸 어두운 채색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서 배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더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과 멘토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DreamBooth 대신 LoRA 학습을 사용해보는 걸 추천받았다.

베스트 컷 deliberate.safetensors + Lora

2. image to image

베스트 컷 deliberate.safetensors + Lora

2. image to image



LoRA 학습이란, 다른 사람이 학습시킨 타 AI 모델에 우리의 데이터를 덧붙여서 학습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훈련이 어느 정도 완료된 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온전히 우리 데이터로만 학습시킨 첫 번째 모델보다도 더 완성도 높은 그림을 생성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았던 모든 단점들이 개선되었다. 지저분한 선들이 정돈되고 깔끔해졌으며, 하늘이나 어두운 부분을 짙게 칠하는 부분도 사라졌다. 어두운 부분을 연필로 데생한 것 같이 그려내어 더욱 스케치같은 느낌을 내어 우리가 원하는 그림 AI를 만들 수 있었다. 교수님들과 멘토님의 꾸준한 피드백과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융합수업이라니, 미대생들에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강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부분은 내가 과연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였다. 교수님들 두 분 모두 융공대 소속이셨고, 융합수업이니 수강생 중 일부는 컴공과 학생이었다. 그 때문에 미대생인 내가 수업 전에 아무리 공부하든, 교수님께서 기대하시는 AI 관련 기본지식에 한참 못 미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수강하면서 그리 어려웠던 부분은 많이 없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눈

높이에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해 주셨기 때문이다.

1부 이론 수업 파트에선 확실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았다. cpu, gpu등 이 컴퓨터 관련 기본 부품 단어들조차 하나도 몰랐고, 컴퓨터 부품 중 RAM은 삼성이 탑이라며 뿌듯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RAM이 뭔지 몰랐어서 아리송한 반응만 했었던 나였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론 담당이셨던 민경하 교수님은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의 반응을 많이 살펴주셨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학생들에게서 모르는 반응이 나오면 바로 부가 설명을 해주셨다. 또한, 약 1시간 정도의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질문을 받아서 모든 수강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2부 수업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학원생 멘토분들과 함께 진행이 되었다.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거나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주고 받을 때마다 멘토분이 매번 체크해주셨고,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피드백도 바로바로 주셨다. 심지어 주말 저녁에도 질문에 대한 답장을 빠르게 해주셨다. 24시간 대기해주시는 담당 선생님이 함께해주시는 느낌이였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양희경 교수님께서 각 조를 몇 번씩 돌며 우리가 개발하는 AI의 방향성을 더 명확하게 잡아주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 AI그림이라는 생소한 분야, 이 강의로 시작해보자!

현재 AI 그림 생성 기술의 발전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교수님 말씀으론, 작년에 썼던 수업자료를 올해는 못 써먹을 정도여서 강의 자료를 다 새로 만드셨다고 하셨다. 그래서 AI 그림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빠르게 AI 공부를 시작해보길 적극 권유한다. 본인이 AI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괜찮다. 초보자를 위한 친절한 그림 AI 프로젝트 강의인 <인공지능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기법>이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이 강의를 꼭 들어보길 바란다!

## 읽고, 씹고, 맛보는 국어 교육

국어교육과 21학번 **이혜림**

2023년 1학기 현대문학사 종강을 앞두고, 최미숙 교수님께서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국어교육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국어교육과 학생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였고, 3학년이 된 우리 21학번 학생들을 아낌없이 격려해 주셨다. 나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다가올 4학년까지 대학 생활 4년 내내 최미숙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한 학생이다.

최미숙 교수님은 1학년 2학기 ‘국어교과교육론’, 2학년 1학기 ‘현대시교육론’, 3학년 1학기 ‘현대문학사’, 4학년 2학기 ‘문학교육론’까지 1학년부터 4학년에 이르는 과목을 가르치신다. 1학년의 국어교과교육론부터 3학년 현대문학사 수업까지 들은 지금, 최미숙 교수님의 수업은 주로 다음과 같이 흘러간다. 첫 주에 구성된 조별로 교수님의 안내에 따라 발표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한 발표문을 일괄적으로 피드백하는 워크숍 이후, 조별로 발표를 진행한다. 1시간에 걸쳐 발표가 끝나면, 그 이후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발표조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다. 질의응답 시간이 종료되면 교수님께서 발표 내용에 살을 붙여 가며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 최미숙 교수님의 이러한 수업은 나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해 주었고, 더 나아가 ‘현대시’를 향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었다. 그리하여 지난 2021년부터 최미숙 교수님께 배운 내용을 돌아보고자 한다.

### 국어 교육의 첫 걸음, 국어교과교육론

국어교육과에 처음 입학한 2021년, 기대에 부푼 채 전공 강의를 수강했다. 1학년 1학기의 전공 수업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우던 국어 과목에서 심화된 내용을 주로 배웠다. 1학년 2학기가

되니 더 깊이 있는 전공 지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새롭게 와 닿았던 강의는 바로 최미숙 교수님의 ‘국어교과교육론’이라는 강의였다. 이 강의는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국어과 평가 등 국어 교육의 기초를 다루는 과목이다. 아무래도 ‘문학’이나 ‘문법’이 아닌 ‘교과교육’분야의 과목을 처음 접하다 보니 꽤 생소했다. 처음 이 과목을 수강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왜 배워야 하는지 의문스러웠고, 어려웠다. 그렇지만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 매 수업 시작 전 교재를 미리 읽고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금방 잊어버리지 않게 복습했다.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한 결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 야! 너도 ‘국어교과교육론’ 튜터링 할 수 있어

1학년 1학기에 ‘국어학개론’이라는 과목 튜터링의 튜티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튜터 선배를 보고 나도 선배처럼 멋진 튜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최미숙 교수님의 ‘국어교과교육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내년에 이 과목을 처음 접할 후배들도 나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2학년이 되면 국어교과교육론의 튜티로 활동하고자 다짐했다. 그리하여 나는 방학이 시작되고 국어교과교육론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단권화하여 한글 파일로 정리해 두었다. 그렇게 방학을 알차게 보낸 후, 나는 국어교육과 1학년 후배들과 국어교과교육론 튜터링을 함께하게 되었다.

첫 시간에 나는 튜티들에게 내 경험담을 전했다. 나도 이 과목을 처음 공부할 때 처음 접하는 개념들이 많아 어렵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후배들도 이 과목이 어렵고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나의 예상이 적중했고, 나는 후배들에게 나의 경험에서 우려난 것들을 바탕으로 튜터링을 진행하고자 했다. 수업 시간에 받은 학습지, 학우들의 발표문, 그리고 교재까지 모두 단권화하여 만든 나만의 정리본을 튜티들에게 공유했다. 그리고 zoom의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정리본에 직접 필기해 가며 튜터링을 진행했다. 튜터링을 준비하면서 나도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할 수 있었고, 튜티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내가 놓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시험 전에는 꼭 튜티들과 함께 직접 만든 시험 대비 예상 문제를 풀고, 해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튜터링을 마치고 튜터링 목표였던 ‘A학점 이상 받기’를 성취했다며 고맙다고 연락을 준 튜티도 있었다. 우리의 튜터링 이야기는 국어교육과 문예지 ‘한뽕다비’에도 수록되었다.

이처럼 나는 1학년 때 ‘국어교과교육론’이라는 과목에서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더 나아가 튜터링을 통해 후배들과 함께 좋은 성과를 내 학과 문예지에도 그 흔적을 남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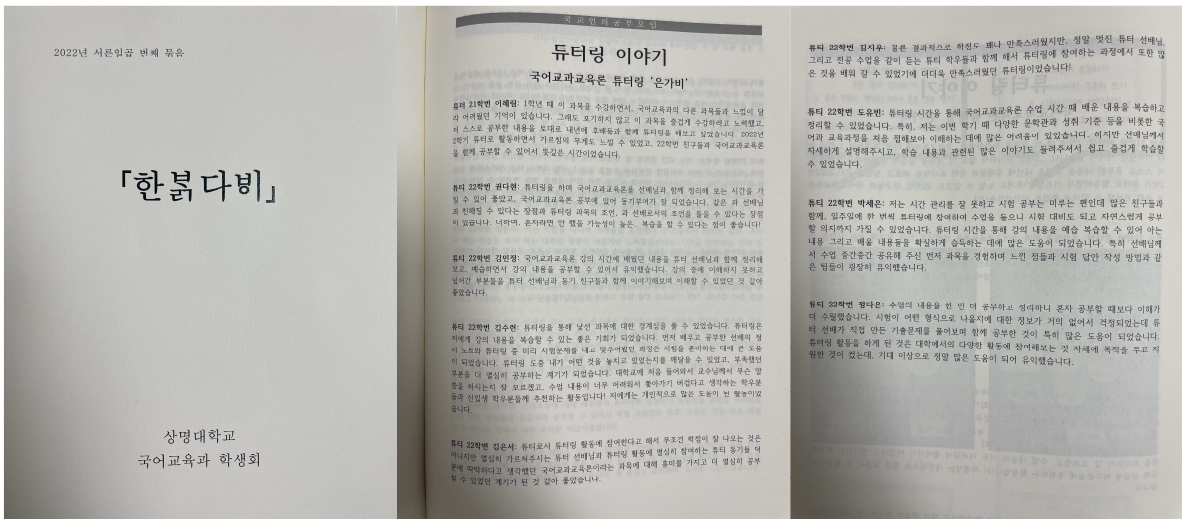


사진 1, 2, 3: 국어교육과 문예시 '한뼘다비' 국어교과교육론 튜터링 이야기

국어교과교육론에서 배운 내용은 건물로 비유하자면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건물의 기초가 약하거나 기초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구조물이 기울어지거나 가라앉아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나는 국어 교육도 이와 맥이 닿는다고 생각한다. 국어 교육의 기초가 탄탄해야 더 견고하고 단단한 '국어 교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국어교과교육론' 과목을 수강한 이후 화법교육론, 국어교과논리및논술, 현대시교육론 등 국어 교육의 세부 분야를 학습했다. 국어교과교육론에서 배운 기초 지식을 토대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위 과목들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 현대시의 매력, 현대시 교육론

2022년 국어교육과 2학년이 되고, 최미숙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현대시교육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2학년이 되니 전공 지식의 깊이도 한층 더해졌다. 1학년 때는 교재를 꼼꼼하게 읽고 요약하여 발표하는 것이 주된 학습 내용이었다. 2학년이 되니 도서관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과 관련된 서적을 찾아 읽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우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과제였다. 처음 과제를 부여받았을 때는 과제와 관련된 책을 찾는 것도,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배울 현대시 작품이 국어과 교육과정, 그리고 국어과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발표하기로 했다.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1학년 국어교과교육론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고, 현대시교육론 시간에 직접 교과서 학습 활동과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게 된 것이다. 당시 코로나에 걸려 힘들었지만 지난 학기에 배운 기억을 되살려 학우들과 힘을 모아 함께 자료를 찾고, 읽고, 발표를 준비했다. 앞 순서를 맡은 학우들의 발표를 듣고, 질문과 답변을 하고, 교수님의 정리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학기 초에는 이해되지 않던 개념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했다. 평소 나 스스로를 내향적이라고 생각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거나 적

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었는데, 발표를 들으며 궁금한 점이 생겨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도 했다. 내 질문에 대한 학우의 답변과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얻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발표 순서가 돌아왔다. 우리 조는 풍자와 패러디, 그리고 풍자와 패러디를 다룬 국어과 교과서 학습 활동을 맡았다. 나는 풍자와 패러디에서 같은 조 학우들이 예시로 든 시와 똑같은 시가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발표했다. 교수님께서 학우들이 공부할 분량을 줄여 주었다며, 유기성이 높은 발표였다고 칭찬해 주셨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 1학년 때 배운 기초 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고, 더불어 ‘현대시’라는 갈래를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었다.

### 풍자 관련 교과서 학습 활동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 성취기준

**[9국05-09]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한다.**

이 성취기준은 학습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 삶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생각, 취향, 가치관 등을 표현한다. 다양한 문학적 표현 방법 중 운율, 언어, 역할, 풍자의 원리와 그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개성을 살려 문학 창작 활동을 보다 풍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해와 탐구> 다음 시조를 읽고, 풍자 표현과 그 효과를 알아보자.**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넌바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뭍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졌구나  
모처럼 날랜 나이나니 망정이지 어쩔 질 뻔했구나

-작자 미상

두엄: 똥 또는 가축의 배설물 따위를 백린 거름.  
두엄: 위축으로 날라다 또는 위축으로 날라가다.  
백송골: 백송고과, 맛과의 하나. 잘 통루 기운이 많이 크며 성질이 굳고 날랜.  
모처럼: 마침(마련) 경우나 기쁨(애망)의 뜻함.  
어쩔: 탄박상 따위로 살 속에 피가 맞침, 또는 그 피.

### 패러디 관련 교과서 학습 활동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학' 성취기준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제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문학 활동은 인간의 본질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과연 표현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이 상상하거나 체험한 내용 중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선별하고 이를 준거로 삼아 자신의 관점과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내용과 표현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과 방법에 맞는 형식과 맥락, 매체 등을 선택하여 재구성하거나 창작하고 이를 발표하도록 한다. 이때 자신의 창작과 다른 학생의 창작을 비교하여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지도한다.

**<감상 열기> (가)는 원작이고, (나)는 (가)를 패러디한 시이다. 작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에 보자.**

가	나
<p>내가 귀의 이름을 불러 주지 못하는 것은 내일 해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귀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나는 내일로 돌아 왔다.</p> <p>내가 귀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발을 두들기며 영혼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때부터 귀가 나고, 그의 꽃이 되고 싶다.</p> <p>우리는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은 나는 내일 나는 내일 잊혀지지 않는 해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p> <p style="text-align: right;">- 김춘수, 「꽃」</p>	<p>내가 단추를 눌러 주지 못하는 것은 단추 해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귀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나는 내일로 돌아 왔다.</p> <p>내가 귀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내가 귀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나의 발을 두들기며 영혼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때부터 귀가 나고, 그의 꽃이 되고 싶다.</p> <p>우리는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은 나는 내일 나는 내일 잊혀지지 않는 해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p> <p style="text-align: right;">- 장정원, 「단추」가 사랑을 받고 할 수 있다면; 김춘수의 「꽃」을 변주하여;</p>

사진 4, 5, 6, 7: 수업 시간에 배운 ‘풍자’와 ‘패러디’를 담고 있는 교과서 학습 활동

## 현대시의 끝판왕, 현대문학사

2023년, 3학년이 되고 다시 최미숙 교수님의 ‘현대문학사’라는 강의를 수강했다. 이 강의는 191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의 현대 시문학사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다. 1900년대 전반의 시문학의 내용을 배우는 만큼 그 양도 가히 압도적이었다. 우리는 10년을 주기로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그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며 시를 해석하는 과제를 받았다. 분명 1학년의 국어교과교육론, 2학년의 현대시교육론을 수강했을 때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3학년 현대문학사 시간에 사용하는 교재는 반복해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기는커녕 활자가 눈에서 튕겨 나가는 느낌이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문의 깊이도 깊어짐을 체감했

다. 나는 1990년대 현실주의 시 부분을 맡았는데, 앞 시기의 시문학사 내용을 모르다 보니 이해하는 데 애를 먹었고, 다른 시기에 비해 비교적 최근 쓰인 작품이기에 더더욱 자료를 찾기 쉽지 않았다. 학술정보관에 있는 단행본으로는 시 해석이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맡은 작품을 해석한 책을 검색했다. 그 결과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겨우겨우 원하는 책을 찾았는데, 1990년대에 발행되고 절판되어 더 이상 구할 수조차 없는 책이었다. 워낙 오래된 책이라 책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도서관도 거의 없어서 절망에 빠진 상태였는데, 문득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제공서비스가 떠올랐다. 다행히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 학교 학술정보관과도 협약을 맺고 있어서 학술정보관 4층 참고정간실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급하게 도서관에 가 절판된 책의 원문을 읽어볼 수 있었고, 발표에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고, 또 다시 앞 순서 학우들의 발표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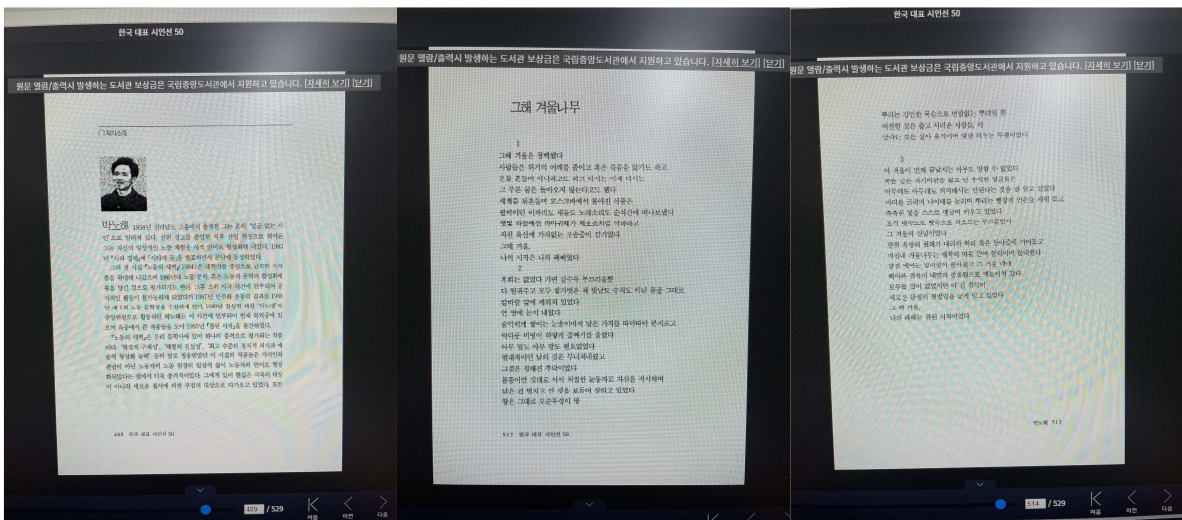


사진 8, 9, 10: 과제 수행 중 학술정보관에서 이용한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제공서비스

사실 50분 동안 누군가의 발표에 집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최미숙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 모두 학우들의 발표 이후에 질의응답과 교수님의 정리하는 강의가 이어진다. 1학년 때부터 학우들의 발표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기른 덕분에 3학년이 되어서는 학우들이 한국의 현대 시문학사에 대해 발표하는 50분 내내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학우들이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주고,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 덕분에 해독하는 것조차 버거웠던 책도 술술 이해되기 시작했다. 분명 처음 과제를 수행할 땐 책의 내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는데, 강의 후반부로 갈수록 스스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 듯했다. 나는 마지막 순서로 1990년대 박노해 시인의 작품과, 학기 초반에는 나 스스로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시의 해석도 소개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진짜 내 공부라는 말이 있다. 나는 최미숙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체화하는 공부 방법을 터득했다. 더 나아가서 ‘현대시’라는 장르에도 흥미가 생겼다. 평소 시를 즐겨 읽는 편은 아니었는데, 현대문학사 수업을 통해 시를 음미하는 것

의 재미를 느끼고는 시집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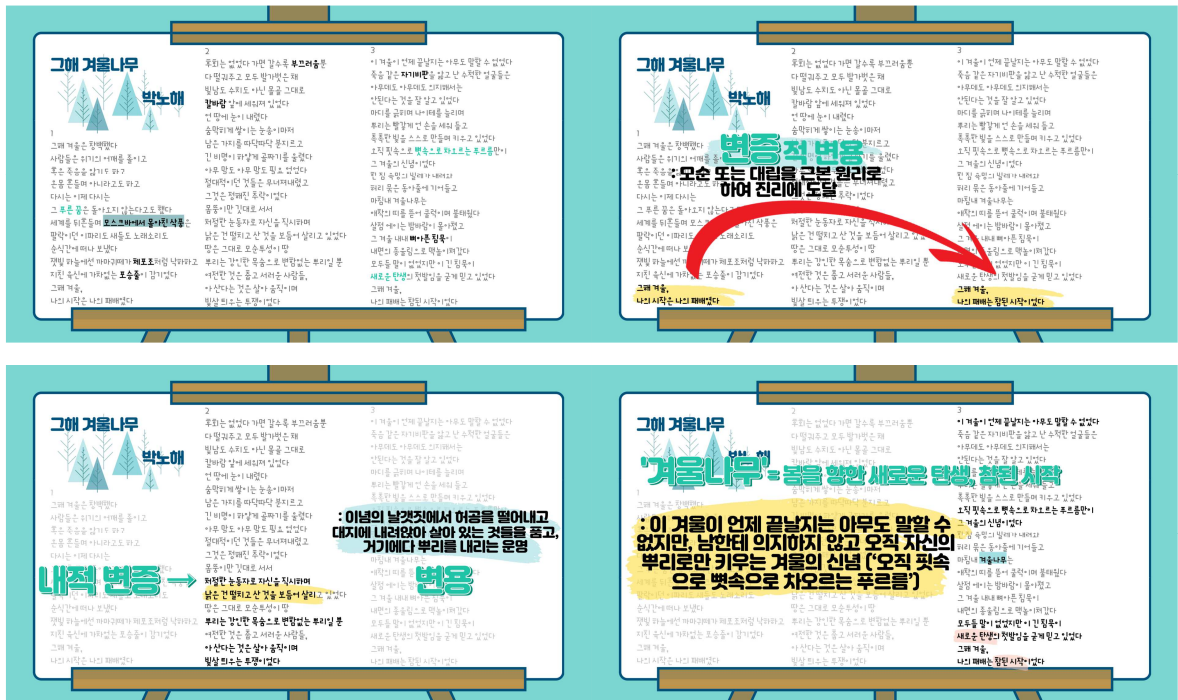


사진 11, 12, 13, 14: 스스로 공부하여 학우들에게 발표한 작품 「그해 겨울나루, 박노해

마지막으로, 현대문학사를 비롯하여 현대시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 모두 지필고사에서 핵심만 제시하는 답안보다는 대학에 와서 새롭게 배우고 공부한 내용을 답안으로 서술해야 한다. 학우들의 발표, 질의응답, 교수님의 수업 세 가지를 본인만의 것으로 체화하는 ‘진짜 공부’를 해야만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한 학기 동안 최미숙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시험까지 보고 나면 정말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처럼 최미숙 교수님의 수업은 누군가의 발표에 귀 기울이는 방법, 대학생으로서 학문을 스스로 탐구하고 적용하는 방법, 교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 문학을 향유하는 방법 등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강의이다. 대학에 입학해 학문을 읽고, 씹고, 맛보는 것의 즐거움을 깨우치게 한 최미숙 교수님의 강의는, 나를 국어 교육의 길로 폭 빠져들게 한 우수 강의이다.

## 강의를 통해 배운 살아가는 방법

글로벌경영학과 23학번 **오도연**

### 강의 소개

호모엠펠티쿠스(고통받는 인간) 수업을 우수강의로 소개합니다. 이 수업은 인생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하는 수업으로 토론형으로 진행됩니다.

#### 1. 교수님 소개

호모엠펠티쿠스 수업을 담당하시는 최종술 교수님은 수업 내용만 본다면 흔히들 철학과를 나오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업 때 직접 번역했던 시를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강의 자료에서도 시와 소설, 노래 등 다양한 문학 작품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 교수님의 특별한 수업 방법

아래 사진과 같이 최종술 교수님은 다양한 문학작품을 수업 중에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이를 통해 수업 내용의 이해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토론형의 수업을 진행하시며, 학생들의 생각을 물으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십니다. 의견을 계속해서 물어보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수업의 가장 인상 깊은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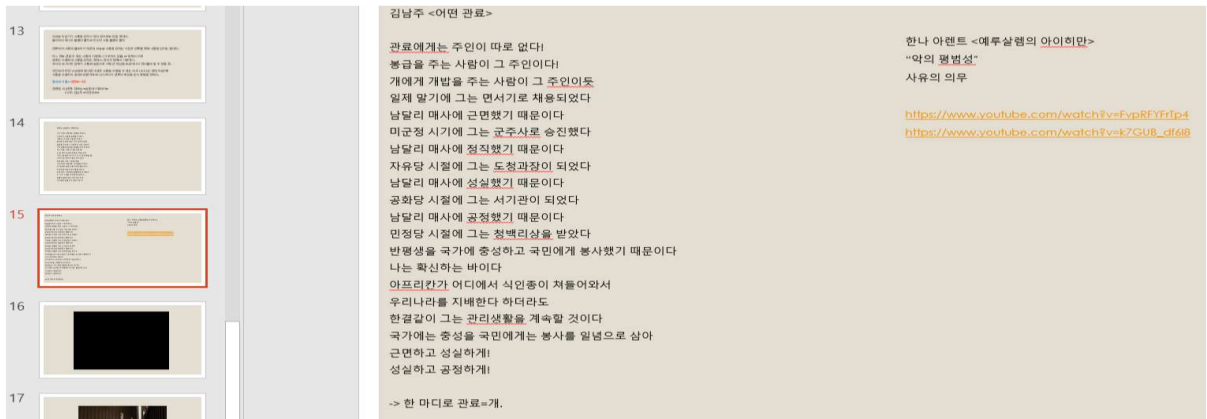


그림 1. 수업자료에 있던 김남주 시인의 어떤 관료

## 2. 강의 목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이론적, 실천적으로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탐구합니다. 또한 인간적인 삶에 대한 성찰은 다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자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할 때만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고통에 대한 공감을 계속해서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배웁니다.

## 각 주차별 느끼고 배운 점

1주차: 공감 능력의 중요성과 인문학의 이해. 인문학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클레멘트 코스의 사례를 통하여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닌, 물고기를 왜 잡아야 하는지부터 질문이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모든 주차를 통틀어도 1주차 만큼 제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내용은 없었습니다.

2주차: 대학의 기원과 인문학의 역할. 대학을 왜 다녀야 하는지는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을 결정할 때, 대학 진학의 이유를 명확히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학력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공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왜 한국이 그렇게나 공부를 강요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의 발전도 도약적으로 이루었으니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생각해야 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초로 다져놓아야 하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주차였습니다.

3주차: 개발 경제시대의 책임과 의무의 윤리, 지식 기반 사회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자기계발하는 개인. 이 주차에서는 개발독재시대의 윤리 교육을 보며 윤리가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

게 해준 주차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사를 수능을 위해서만 공부를 해왔기에, 개발독재시대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국민들을 어떻게 교육하였는지(국민교육헌장 등)는 잘 알지 못하였는데, 역사까지 배울 수 있어서 의미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4주차: 공감 능력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대적 맥락에 대한 이해. mbti라는 성격유형 검사가 유행하면서 T(사고형)와 F(감정형)의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 논쟁들을 보며 왜 서로가 이렇게 다른 걸까. 인간이라면 공감 능력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닌가?라며 생각하곤 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지능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태초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다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주차를 듣고 그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거울 뉴런(공감할 수 있는, 인간이 태초부터 가지고 있는 공감 세포)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퇴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감은 인간이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저 공감에 대한 '잠재성(거울 뉴런)'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5주차, 6주차: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이해. 이 주차가 저는 이 수업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과,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배우는 주차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인간은 구원을 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삶을 끝냄으로써 영원의 안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원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지, 애초에 인간은 왜 고통받아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시선에서의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7주차: 고통의 인간 존재론. 5주차와 6주차에서 학습한 구원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인데요, 7주차에서는 이 고통이 왜 인간에게 생기는지, 왜 인간이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배웁니다. 수업에서는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라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받는 것이라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통을 주로 설명합니다. 종교가 없는 제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흥미로운 내용이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9주차: 고통의 변증법적 속성. 7주차에서 배운 고통을 더 심화해서 배웁니다. 특히 학습목표에도 나와있듯이 고통의 변증법적 속성을 중심으로 학습하는데요, 이를 통해 고통은 부정적인 면(ex. 아픈 것)과 긍정적인 면(ex. 생명유지) 모두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주차: 고통에 대한 역사철학적 이해. 이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 이 주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나 물었을 때, 박완서 시인의 <한 말씀만 하소서>를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업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참척으로 인한 아픔을 담은 작품이라, 이 작품을 읽으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규가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아 쉽게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완서 시인은 왜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야 했는지 신에게 묻고 반항합니다. 그 모습을 보

고 있으면, 왜 어린이가 같은 죄 없는 인간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이런 문제(죄 없는 인간이 고통받는 것)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독교가 내놓은 방안은 내세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내세가 있을지 몰라도, 종교가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세보다 현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적 고통관(죄를 지어서 인간은 고통받는다)은 종교인이 아니라면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10주차는 이런 기독교적 모순을 두고 고통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주차입니다.

11주차: 유토피아주의와 민주주의. 대학교에 들어오고 희망하는 수업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는데, 이 주차의 내용을 학습하고 보니 너무 희망하는 수업만 들으면 오히려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토피아를 희망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를 듣고, 다시 생각하니 모든 디스토피아를 꿈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의 희생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12주차, 13주차: 고통과 윤리, 그리고 연민과 사유. 이 주차들에서는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하는 거지만, 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천 윤리’입니다. 이 주차의 핵심은 ‘연민을 알리바이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연민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연민을 느꼈으니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연민을 자신이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알리바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사유입니다. 사유는 역사적으로 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이히만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히만의 죄는 정부의 지시를 끝이 끝대로,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사유하지 않고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아이히만같이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일상에서도 충분히 무사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 주제로 일제강점기의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겠냐고 묻곤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잘 살 수 있다면, 독립의 편에 서진 않았을 거라고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무사유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알게 되었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자신에게는 해가 되지 않으니 행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이제는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12, 13주차의 내용 덕분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수업이 한 사람이 평생을 가져오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고,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편협한 것이었는지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14주차: 사랑의 연대. 마지막 수업에서는 사랑에 대하여 배웁니다. 사실 그전부터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공감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사랑의 태도이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자세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고, 그로 인해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비로소 진정한 호모엠평티쿠스의 인간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 이 수업을 공부했던 방법

중간평가와 기말 평가 모두 공부 방식은 동일했습니다. 서술식으로 시험이 출제된다는 사실은 미리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외운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수업 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이해하려 하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따로 남아서 질문도 하고,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녹화강의를 올려주신 것을 돌려보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한 것을 말로 설명하며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이 수업이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적인 내용은 큰 틀(호모엠평티쿠스의 인간상)로 있었기 때문에, 매 수업에 임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덧붙인다고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삶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모든 시간들이 인생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도 지겹지 않았습니다.

## 이 수업의 과제

과제는 기말 과제 하나로, 에세이를 쓰는 것입니다. 에세이의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통’의 존재론과 윤리: 이 강의를 통해 ‘고통’이라는 현상이 인간에게 지닌 존재론적, 윤리적 의미에 대해 성찰한 내용이 ‘나’의 자아성찰 및 삶의 자세와 관련하여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나’는 달리 생각한다!: 강의 내용 중 의문을 제기하고 반론을 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

우리 시대 고통의 현장과 해결책: 이 시대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삶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들 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 고통의 해결 방법 모색하기

심화 주제 연구: 강의에서 다룬 주제들 중 특정 주제에 대해 심화 탐구한 내용

저는 여기서 1번 고통의 존재론과 윤리를 선택했고, 아래 사진은 실제로 제가 작성한 기말 에세이 과제입니다.

## 호모엠파티쿠스(2분반) 학기말 과제

202310662\_오도연

‘고통’의 존재론과 윤리 : 이 강의를 통해 ‘고통’이라는 현상이 인간에게 지닌 존재론적, 윤리적 의미에 대해 성찰한 내용이 ‘나’의 자아성찰 및 삶의 자세와 관련하여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형식: 에세이

분량: 자유 (‘아래 한글’ 혹은 ‘ms-Word’ 3쪽 이상 권장)

제출기한: 학기말고사일까지 제출

그림 2. 과제로 제출했던 에세이 표지

「호모엠파티쿠스-고통받는 인간」의 수업을 들으며 내가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짚어 보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정립해왔던 고통에 대한 나만의 생각, 즉 ‘고통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수업은 고통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들도 사례로 종종 나올 때가 있었다. 그래서 깨닫는 부분이 많았다. 가장 내게 와닿았던 부분은 ‘왜 내가 고통받아야 하는가.’하는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나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것인지에 대한 신세한탄은 했어도 내가 왜 고통받아야 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 수업은 그걸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내가 대학에 들어오면서 가장 바란 것은, 인생에 대해 깨닫고 배우는 것이었는데, 이 수업은 내게 주어진 정답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게끔 해준다는 점에서 내가 들은 어떤 수업들보다 가장 만족스럽다.

나의 고통관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할 것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인생관’과 두 번째로는 나의 ‘고통’이다. 인생을 고통으로 바라보는 이 수업에서는 나의 인생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고통과 그에 따른 인생관들이 속속들이 나타날 것이다.

나의 인생은 2004년 11월 21일에 시작했다...는 이런 진부한 얘기 말고, 내가 인생에서 겪었던 아팠고 고통받았던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그림 3. 과제로 제출했던 에세이 내용 중

### 호모엠파티쿠스(고통받는 인간) 수업 추천 이유

수업에서 문학, 철학, 종교,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더 잘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많은 분야를 다루는 것이 이 수업을 우수강의로 소개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이 수업의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왜 그것이 문제이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제가 이 수업을 ‘우수’ 강의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어떤 것이 왜 당연하고, 당연하지 않은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 수업을 듣기 전의 저는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처음에는 얼버무리려도 점차 고뇌하며 한마디씩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그 생각을 점차 확장시켜 생각이 비로소 말로 나오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룬 인간이 되어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힘도 길러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길잡이 역할을 해준 수업이었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된 수업이라,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호모엠포티쿠스(고통받는 인간)를 우수강의로 소개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의 부제인 고통받는 인간은 호모엠포티쿠스의 해석이 아닙니다. 호모엠포티쿠스는 공감하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졌으며, 고통받는 인간을 부제로 붙인 이유는 공감과 고통이 공존해야 하며, 공존을 통해 남의 고통을 공감하는 인간만이 다시금 누군가에게 공감을 받고 그렇게 사랑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독수리 타자 치던 내가 코딩을?

생명공학전공 21학번 **윤한서**

### 강의 소개

권정인 교수님의 <컴퓨팅 사고와 데이터의 이해> 강의를 우수강의로 소개합니다. 본 강의는 교양필수 강의입니다. 본 강의는 지능정보사회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SW적 기초 지식 습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 생활에 문제를 컴퓨터의 동작원리와 개념을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지식 탐구 능력과 현실 문제 적용 능력을 갖추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강의는 SW의 중요성과 필요성, 컴퓨팅 사고, 문제해결 방법,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포함하는 강의입니다. 교과목의 목표는 첫 번째, 지능정보사회의 SW 중요성 및 ‘컴퓨팅 사고력’, 기본 IT 기술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일상에서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 원리를 중심으로 분석/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터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배양입니다. 본 강의는 매 강의마다 배운 내용을 과제로 제출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엔트리와 파이썬이라는 코딩 프로그램을 통한 SW적 기초지식과 코딩과정의 이해여부를 확인해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추천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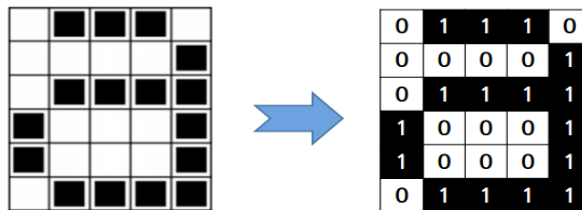
컴퓨팅, 데이터와 같은 단어는 저와는 동떨어진 단어입니다. 타자도 느리고 한글, PPT, 엑셀 등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다루는데도 미숙한 제게 있어 코딩을 다루는 수업은 그야말로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PPT 만드는 데도 한참 애먹는 제게 코딩은 그야말로 먼 나라의 이야기이기에 듣고 싶지 않은 수업이었지만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긴장감 속에 첫 OT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포스를 풍기시며 오신 교수님의 첫인상은 유쾌하고 시원한 성격 그 자체였습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모습과 친절한 설명에 ‘교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찰나 PPT에 쓰여진 자료, 정보, 데

이터, 유비쿼터스 등의 복잡한 단어를 보는 순간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읽으셨는지 교수님께서서는 친절한 설명으로 어렵지 않다고 학생들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 데이터의 표현

### 컴퓨터의 이미지 표현

- 0과 1로 변환함
- 0을 흰색, 1을 검정색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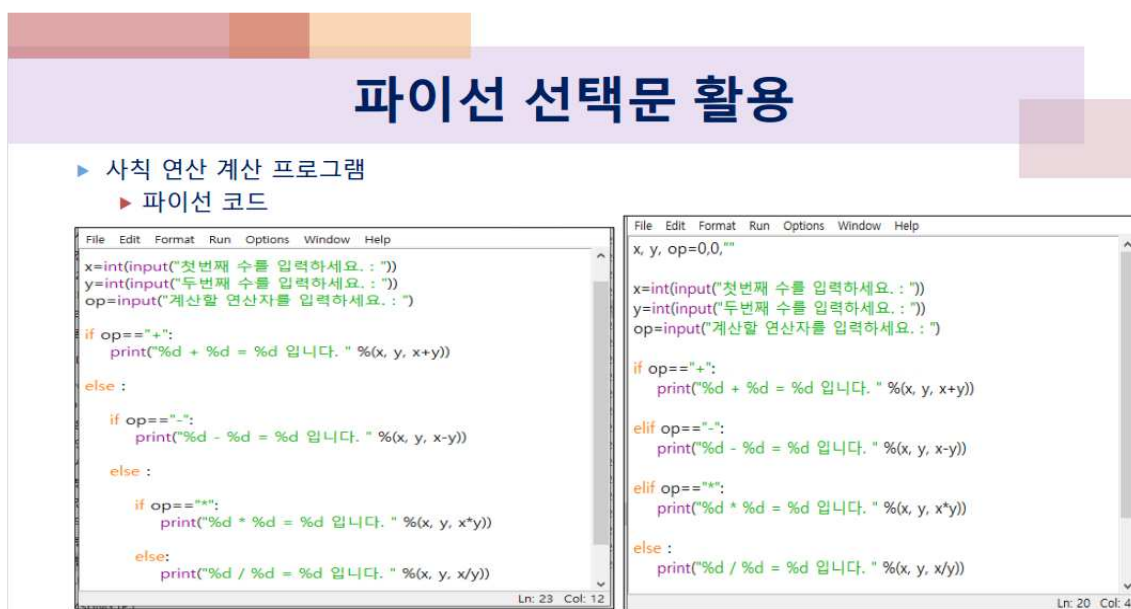
실제로 교수님께서서는 복잡한 개념이 나오면 알기 쉬운 예시를 들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고 이런 강의 방식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데이터의 표현이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다고만 설명한다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렇게 시각화된 이미지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셔서 개념만 보는 것보다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시들을 통해 배우니 수업내용 자체가 좀 더 가볍게 다가왔고 강의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 엔트리의 제어문 적용\_순차문

11

수업시간에 처음으로 접한 코딩프로그램은 엔트리라는 국산 프로그램입니다. 교수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강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막상 진짜 코딩 프로그램을 만나고 나니

다시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은 국내 코딩프로그램으로 UI가 블록을 쌓는 것 같은 아주 간단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엔트리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실습시간에 간단한 코딩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이 간단하더라도 코딩이 인생에서 처음이었던 저의 걱정을 교수님께서 다시 한 번 없애주셨는데 코딩에 앞서 프로그램의 형식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며 학생들이 천천히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게 개인적으로 피드백 주시며 신경 써주셨습니다. 사실 코드가 길어질수록 놓치는 부분도 많이 생겼는데 질문에도 친절히 대답해주시고 또 모든 학생들이 다 진행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서 천천히 코드를 짜며 교수님의 스텝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코딩을 처음 해보는지라 모든 것이 신기했고 교수님의 수업방식 덕분에 좀 더 코딩에 흥미를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론 수업시간에 코딩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던 터라 스스로 코딩해보는 것에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중간고사까지는 엔트리를 활용했지만 중간고사 이후로는 파이썬이라는 코딩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사실 엔트리가 유치해 보일 정도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은 진짜 코딩 프로그램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컴퓨터 관리자 창에서나 보일법한 UI를 가지고 엔트리같은 시각적인 자료도 없어 파이썬은 '본격적인 코딩프로그램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난이도도 엔트리보다 어렵고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하는 프로그램이다보니 엔트리를 사용하던 때보다 훨씬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스타일대로 먼저 예시를 들어주시고 학생들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실습이 진행되었고 엔트리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긴 했지만 교수님이 뒤처진 학생들을 기다려 주시며 부담감을 줄여주셔서 느리지만 천천히 진도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처진 학생들을 버리고 진도를 나가지 않은 것에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파이썬을 배우면서 진짜 코딩같은 느낌을 받았고 컴퓨팅과 데이터, 코딩 등에 대한 개념을

잘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 파이선의 제어문 적용\_선택문

엔트리	파이선
<p>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p> <p>우수를 입력하면 크기를 비교해 드립니다. 음(음) 2 초 동안 말하기</p> <p>첫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음(음) 듣고 대기 기다리기 ?</p> <p>첫번째 수 &gt; 음 대답 (이르 말하기 ?)</p> <p>두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음(음) 듣고 대기 기다리기 ?</p> <p>두번째 수 &gt; 음 대답 (이르 말하기 ?)</p> <p>1. 만일 첫번째 수 &gt; 음 &gt; 두번째 수 &gt; 음 (이러면)</p> <p>첫번째 수 &gt; 음 (이) 더 큼니다. 음(음) 4 초 동안 말하기</p> <p>2. 만일 첫번째 수 &gt; 음 &lt; 두번째 수 &gt; 음 (이러면)</p> <p>두번째 수 &gt; 음 (이) 더 큼니다. 음(음) 4 초 동안 말하기</p> <p>3. 만일 첫번째 수 &gt; 음 = 두번째 수 &gt; 음 (이러면)</p> <p>우수가 같습니다. 음(음) 4 초 동안 말하기</p>	<pre>print("두 수를 입력하면 크기를 비교해 드립니다.") first=int(input("첫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 second=int(input("두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  1. if first &gt; second:     print(first, "가", second, "보다 큼니다.")  2. if first &lt; second:     print(second, "가", first, "보다 큼니다.")  3. if first == second:     print(first, "와", second, "가 같습니다.")</pre>

파이선이 어렵지만 그래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교수님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던 엔트리와 파이선을 비교하며 같은 알고리즘임을 비교 설명해주셔서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파이선만 단독으로 배웠다면 좀 더 이해가 힘들었을 것 같지만 이전에 배웠던 엔트리의 개념과 비교하며 상기시켜 주셔서 이해가 한 층 쉬워졌습니다.

**실습1**

**[주제] - 파이선 선택문 활용**  
파이선 if elif else 문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문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는 1.피자, 2.치킨, 3. 햄버거 중 하나의 메뉴를 선택하고 수량을 입력합니다. 최종적으로 주문한 음식과 총 가격을 출력합니다.

**[결과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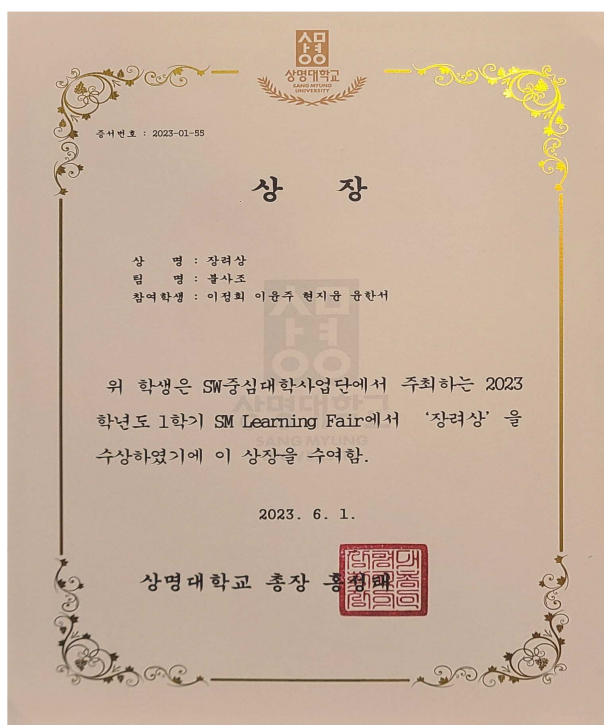
```
Python 3.10.4 (tags/v3.10.4:9d38120, Mar 23 2022, 23:13:41)
Type "help", "copyright", "credits" or "license()" for more
>>>
=====
= RESTART: F:\WD드라이브_20220816W강의W2023년도W컴퓨터
=====
배달음식 주문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뉴를 선택하세요:
1. 피자 - 20,000원
2. 치킨 - 15,000원
3. 햄버거 - 10,000원

선택한 메뉴의 번호를 입력하세요 : 2
주문하려는 수량을 입력하세요 : 3
주문한 음식 : 치킨
총 가격 : 45000원
>>>
```

교수님의 강의를 우수강의로 추천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과제입니다. 사실 학생 입장

에서 과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습과제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날 배운 내용을 쉽사리 잊어버리는데 매 시간 과제가 있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심적 부담을 느꼈지만 교수님께서 실습시간 당시에 만든 코딩결과물을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여 따로 시간을 내어 과제를 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여주셨습니다. 그날그날 수업시간에 배워 만든 결과물을 그 자리에서 제출하면 되니 학생입장에선 과제 부담없이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어 이 점이 항상 감사했습니다.

## 강의수강 소감 및 성취



본 강의에는 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팀을 구성해 엔트리 코드를 짜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제가 있었는데 팀원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수님이 알려주신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상명대학교를 소개하는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고 학생들의 투표로 저희 팀의 작품이 선정되어 SM 중심대학사업단에서 주최하는 2023학년도 1학기 SM러닝페어에서 입상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는 코딩과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는데 필수교양이라 듣게 된 강의에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감사하게도 상과 장학금까지 주셔서 '이 강의 듣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상에 맞춰 본 강의는 앞으로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소양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강의를 통해 코딩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직접 프로그램까지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수님의 친절 한 지도가 아니었다면 흥미를 붙이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점이 느껴졌던 게 시험이 끝나거나 종강 시 학생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말씀과 인사로 감동을 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시험이 끝나고 그 글을 읽어보는데 교수님의 진실된 마음과 응원이 전달되어 너무 감사했고 또 다른 강의로 또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시간이 금요일 오전이라 학생들의 출석 시간을 배려해주시고 학생 하나하나 잘 따라오는지 체크해주시며 학생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응원과 소통이 너무 잘 느껴져 좋았고 수업 시간에 대답 크게 못한 것이 죄송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코딩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어렵지 않게 발 들일 수 있게 지도해주셔서 너무 감사 드리며 권정인 교수님의 '컴퓨팅 사고와 데이터의 이해' 과목을 우수 강의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2023학년도 1학기  
상명엑스퍼트 공모전  
최 우수

결국 인생은 장기전,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생활습관과 학습법

컴퓨터학과 22학번 **이채원**

### 참여 동기

이전의 상명 엑스퍼트 공모전의 Part2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의 수상작들뿐 아니라 수많은 시험 수기를 보면 단기간의 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이 나와있고 장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진로 탐색이나 취창업 등에 대한 도전기는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경험을 해보며 수없이 도전을 해온 나의 이야기와 꿀팁을 풀어보고자 한다.

### 나의 실적

우선 나만의 팁을 공유하기 전에 나에 대해 증빙을 하고자 실적을 풀어보겠다.

장학수혜목록 [ 7 ] 수혜학년도/학기 \* 선택

No	학년도	학기	장학구분	대가구분	장학금코드	장학금명	장학금명(영문)	차수
1	2022	2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80	면학 A	Academic A	1
2	2022	2학기	교내	대가	10211	특별(근로)	Special (Work-Study)	3
3	2022	2학기	교외	대가	20601	대학혁신지원장학금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Scholarship	1
4	2022	1학기	교내	대가	10675	비교과 마일리지	Extracurricular Program Mileage	2
5	2022	1학기	교내	대가	10743	SW인재(등록외)	SW Scholarship(Beyond the scholarship limit)	1
6	2022	1학기	교외	학비감면	20576	국가장학2-입학금지원	National Scholarship for Admission	10
7	2022	1학기	교외	대가	20601	대학혁신지원장학금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Scholarship	3

나는 2022년도에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새로 입학하였다. 1학년 1학기에 최대 학점인 19학점을 들으며 약 50명의 전공자들이 속해 있는 학과 내 상위 10% 안에 들어 면학A 장학금을 받았다. <컴퓨팅사고와데이터의이해> 교과목과 연계되는 SM Learning Fair에서 1등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SW] 2022학년도 1학기 SM Learning Fair 수상자 공지

SW중심대학사업단 1건 2,007회

2022-06-14 13:29

2022학년도 1학기 SM Learning Fair 수상 현황							
NO	팀명	작품제목	소속전공	분류	학년	이름	수상명
1	공강이조	공강이세요?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간환경학부	팀장	2022###33	이#영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간환경학부	조원	2022###01	김#규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간환경학부	조원	2022###39	최#영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간환경학부	조원	2022###42	하#영	

▲ SM Learning Fair 수상

그리고 컴퓨팅사고와데이터의이해 교과목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Unity 프로그램과 C# 언어를 이용하여 스티디상생플러스 활동으로 지도 교수와 튜터님의 멘토링을 받으며 앱을 개발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하였다.



▲ 스티디상생플러스 활동으로 출시한 어플리케이션 <공강이세요?>

그리고 상명튜터링 프로그램에 튜터로 참여하여 1학기 동안 튜터에게 1~2주에 한 번씩 동기들과 단체로 학습 지도를 받았다.

튜터링 보고서(튜티용)

튜터명	이재원	팀명	시선(리더)는 튜티용
소속	학과 : 공간환경학부	학년 : 2022 10 133	학년 : 1
튜터링 과목	환경과공간정보의이해		
1. 튜터링 참여 동기 및 학습목표에, A과일 받기, 다정관 친구 사귀기 등)			
1:1로 진행하던 과거의 과외나 학원시절 연료형 프로그램과는 달리 1명의 튜터와 다수의 튜티가 진행하는 튜터링이라는 플랫폼을 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비교적 현실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목표였습니다.			
특기 친구들과는 체계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중간에 사정으로 휴학) 도움을 게 있어서, 더불어 교육, 이를 내신 공부하다가 대학 공부 튜터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아주도 도움, 신중하게 되었습니다.			
2. 튜터링 활동 소감			
친구 지식을 토대로 튜터님에게 배워서 재미있습니다. 이미 해당 과목에 대해 심화 학습을 하고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교수님, 선생님께 강의 들을 것과는 별다른 보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교재를 추가, 필기, 표집해서 재배해주시는 튜터님 덕분에 해프린 내용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프린트에 나와있지 않고 교수님의 추가 설명이 없던 부분을 따로 질문을 하고 정리해오셔서 이해가 쉽고 그런 튜터님의 정성 덕분에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 튜터링 프로그램의 장점이나 개선점			
튜터링을 진행한 해당 과목의 범위와 내용이 개편되어 튜터님이 따로 강의를 진행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강의 내용을 여러 관점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좋은 기억입니다. 일의 튜터님이 튜터링을 통해 의견을 하고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다시 튜터링을 통해 복습을 하고, 구구들을 통해 문제도 내가 배운 지식을 확인하며 소피드워크를 통해, 타 튜터님과 경쟁하는 과정 덕분에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앞으로 튜터링 이외에 여러 스터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생겼습니다.			

▲ 상명튜터링 튜터링 보고서 (튜티용)

또한, 학술정보관 이용교육을 다양하게 참여하여 <정보조사와보고서작성> 교과목에서 1등을

하기도 하며 비교과 마일리지 총 128점을 쌓아 1등,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외 학술 DB]		
(비대면) ProQuest DB 연구자를 위한 RefWorks 이용교육	22/03/16(수)	2점
[학술정보관 검색연진]		
(비대면) Webex EBSCO Discovery Service(EDS) 온라인 학술 정보의 백화점 - 도서관 디스커버리 통합검색 활용 교육 : 학술정보관 구독자향 및 OA자료, 학위논문 통합검색 및 활용	22/03/31(목)	2점
[국내 학술 DB]		
(비대면) Zoom) DBpia 이용방법 A to Z 온라인 이용자 교육 : DBpia 검색 및 검색결과 활용	22/03/16(수)	2점
[국내 학술 DB]		
(비대면) Zoom) KSDC DB/ICPSR 온라인 이용교육(발반) : 온라인 설문조사 이용방법, 국내 조사/통계조사 검색 방법, 해외 양적자료 검색 및 활용법	22/03/17(목)	2점
[국내 학술 DB]		
(비대면) Zoom) KSDC DB/ICPSR 온라인 이용교육(심화) 온라인 통계분석(E-STAT 3.0) 사용 방법,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 작성 방법	22/04/28(목)	2점
[국내 학술 DB]		
상발아이닷컴: 세우, 회계, 법령 검색 및 활용	22/03/24(목)	2점
[국내 학술 DB]		
데이터가이드: 경영/경제분야 금융통계, 주시 등 자료 분석 및 활용 (교내에서만 이용 가능)	22/03/17(목)	2점
(대면) 학술정보관 이용교육: 사실/서비스/구독자향	22/03/17(목)	2점

22-1 스테디상생플러스(합정)	1학기	50점
22-1 상영특허팀(환경과공간정보의미래)	1학기	40점
22-1 비교과교육과정 '익어오름' 학생설명회	22/05/02	2점
2022 온오프스토리	22/05/03	2점
DBpia 이용방법 A to Z 온라인 이용자 교육	22/05/12	2점
DBpia A+리포트 안전정보 온라인 이용자 교육	22/05/13	2점

\* 비교과 마일리지 2점 => 개당?

QGIS Resource 프로그램	10점/20점/30점
22-1 온라인 창업 특강	2점
5m learning fair(교 학생과직원선) 최우수상(1위)	10점
모의토익 교과연계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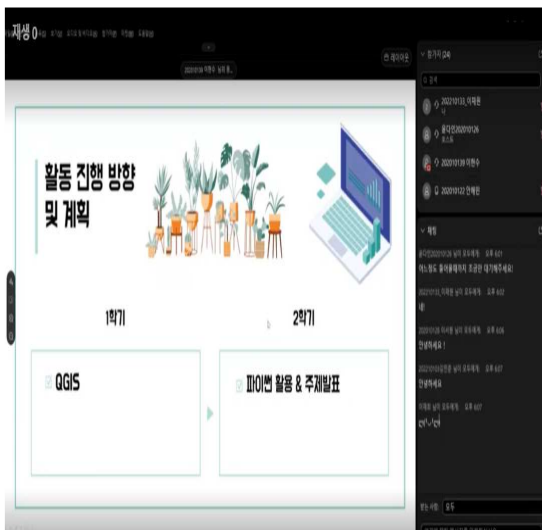
128점

[국외 학술 DB]	
중앙동아리 <체인지>	22/03/18(금)-ing
공간환경학부 소모임 TOC	22/03/16(수)-22/05/25(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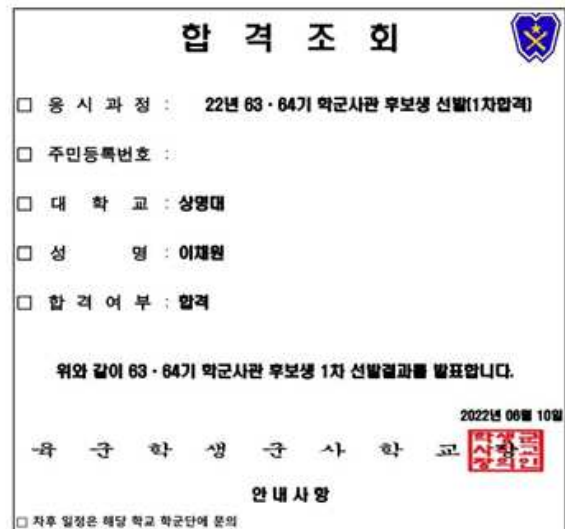
학습점사&MBTI검사 (ESTJ)	22/03/15(토)
--------------------	-------------

▲ 비교과 마일리지 적립 정리본

동시에 중앙동아리 <체인지> 부원으로 활동하여 동아리 내 활동 종합 2등, 운동 1등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공간환경학부 소모임 TOC에 참가하여 QGIS 프로그램을 공부하였다. 동시에 대학원 진학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 중도 포기했지만, ROTC 필기시험에 통과하여 1차 합격을 하기도 했다.



▲ 공간환경학부 소모임 TOC OT 중



▲ ROTC 1차 합격증

1학년 2학기에는 최대 학점인 22학점을 수강하며 마찬가지로 학과 내 상위 10% 해당 면학A 장학금 수상의 기회가 있었으나 컴퓨터과학과 전과로 인해 받지 못했다. 그리고 으뜸교육 페스

티별 공모전 전시를 위한 상명대 메타버스 개발 및 기획을 총장님으로부터 의뢰받아 2학기부터 동기들과 함께 메타버스를 개발하여 출시하였다. 중앙동아리 ‘체인지’의 활동도 계속하였다.



▲ 상명대학교 메타버스

## 생활습관

위와 같은 많은 활동들을 동시에 병행하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나의 생활습관에 대한 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 0. 학교 홈페이지 구경하면서 나와 맞는 것 이용하기

상명대학교 학생이라면 상명대학교에 대해 아는 것은 당연하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 정보는 모두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학교 홈페이지를 살펴보며 자신과 맞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좋다. 나는 진로취업 서비스의 잡플래닛과 에듀스를 보며 내 진로를 고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상명대학교 홈페이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며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고 자신의 성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며 인생의 목표를 잡아보는 것은 인생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위 진로취업 서비스의 에듀스 사이트에서 <취업진로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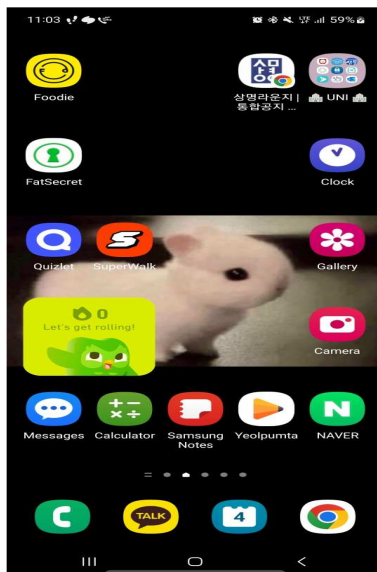
▲ 에듀스 사이트의 <취업진로진단> 서비스

또한 <커리어디자인>이라는 일반선택 교양 교과목을 수강하면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15회차에 걸쳐 가져볼 수 있어서 추천한다. 해당 교과목에서 추천 받은 서비스로 워크넷 사이트의 <직업·진로>서비스도 아래와 같은 메뉴가 있어 한 번씩 살펴볼 것을 권한다. 이외에도 교수님께서 VIA 검사 등 다양한 검사와 탐색 경로를 추천해주시니 강력 추천한다.



▲ 워크넷 사이트의 <직업·진로> 서비스

1. 학교 공지 사이트를 바탕화면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추가하여 수시로 보기  
 학교 공식 앱인 <샘물>을 통해서도 학교의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지만 학교 공지사항 링크를  
 핸드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추가해놓으면 더 편하고 빠르게 수시로 공지사항의 공모  
 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매일 등하교 시간과 공강 시간에 학교 공지사항을 확  
 인하여 가능한 공모전을 놓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다.



▲ 핸드폰 바탕화면

2. 클로바 노트를 이용하여 수업 녹음하기 (교수님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장)

이전 엑스퍼트 공모전 최우수상 에세이를 읽으면 자세한 사용법이 나와 있으므로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음성녹음 앱으로 녹음된 음원을 분석하여 사람의 말소리를 텍스트로 적어준다. 나는 이렇게 녹음한 파일을 복사하면서 기억 안 나는 내용은 돌려 듣기도 하고, 발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부분은 인식된 텍스트를 읽기도 했다. 나는 하교하면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녹음을 다시 돌려 들었다. 이렇게 비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원치 않으시는 교수님이 계실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수님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3. 종이, 타블렛, 노트북 등 도구에 구매받지 말고 자신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 필기 및 공부하기

공부를 할 때 종이로 할지, 타블렛으로 할지, 노트북으로 할지 감이 오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나는 도구에 구매받지 말고 자신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노트북을 주로 이용하였다. 나는 타자가 빠르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좋기 때문에

워드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기를 받아적었다.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에게 소음 피해가 가지 않게 키스킨을 사용하자.

필기할 때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는 것도 좋지만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거쳐 나만의 언어로 적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제일 좋다. 제대로 못 들은 내용은 수업시간이 끝나고 직후에, 혹은 혼자 당일날 수업 내용을 복습하다가 자료나 맥락 등을 통해 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회차 복습 후 다음 수업 시간에 질문하거나 이캠퍼스 메시지, 메일 등으로 질문 드리는 것을 추천한다. 교수님께 질문 드릴 때는 예의를 꼭 갖추어 질문하도록 하자. 또한 이캠퍼스 메시지, 메일 등으로 질문할 때에는 꼭 교과목명과 분반명, 본인의 학번/학과/이름을 밝히도록 하자. 이는 질문뿐 아니라 평소에 연락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사항이다.

#### 4. 우선순위 정하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을 까먹거나 놓칠 수 있다. 심하다면 과유불급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해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업무에는 우선 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종이에 적어도 좋고 삼성 노트 등의 전자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도 좋다. 전자는 잃어버리거나 종이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백업이 가능해 여러 기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알람 설정도 가능한 후자를 추천한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우선순위 정하는 법>

##### 1. 해야 할 일을 간략하게 모두 적는다. (생각나는 대로 적기)

- 컴퓨팅사고와데이터의이해 2주차 수업내용 복습하기
- 스터디상생플러스 지도교수님 구하기
- ROTC 필기 문제집 사기
- 컴퓨팅사고와데이터의이해 단톡 만들기

##### 2. 1차로 적은 Todo List를 구체화 한다.

정확히 해당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풀어서 적는다.

- 컴퓨팅사고와데이터의이해 2주차 수업내용 복습하기 : 이론 파트, 실습 파트
  - ↳ 이론 파트 : 키워드 위주로 백지 복습하기
  - ↳ 실습 파트 : 실습 파일 문제만 보고 코드 적어보기
- 스터디상생플러스 지도교수님 구하기
  - : 상명대학교 학과 홈페이지 교수 카테고리에 접속하여 관련 전공 교수님 리스트 정리하기
    - ↳ 팀원 중 해당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이 있는지 물어보기
    - ↳ 교수님 연락처(메일, 전화번호) 확보하기

- ROTC 필기 문제집 사기
- 컴퓨팅사고와데이터의이해 단톡 만들기
  - ↳ 역할 분담 카톡 보내기 => 역할 분담 어떻게 할지 제안 및 투표하기

### 3. 각 할 일별 마감 기한을 적는다.

- 컴퓨팅사고와데이터의이해 2주차 수업내용 복습하기 : 이론 파트, 실습 파트 (3월 22일)
  - ↳ 이론 파트 : 키워드 위주로 백지 복습하기
  - ↳ 실습 파트 : 실습 파일 문제만 보고 코드 적어보기
- (스터디상생플러스) 상명대학교 학과 홈페이지 교수 카테고리에 접속하여 관련 전공 교수님 리스트 정리하기 (신청 기한: 3월 21일)
  - ↳ 팀원 중 해당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이 있는지 물어보기
  - ↳ 교수님 연락처(메일, 전화번호) 확보하기
- ROTC 필기 문제집 사기 (필기고사: 5월 2일)
- 컴퓨팅사고와데이터의이해 단톡 만들기 (다음 수업 시간: 3월 22일)
  - ↳ 역할 분담 카톡 보내기 => 역할 분담 어떻게 할지 제안 및 투표하기

### 4. 각 할 일별로 중요도 순, 마감기한 순, 빨리 끝낼수 있는 순을 고려하여 최종 순위를 정한다.

- 1) 컴퓨팅사고와데이터의이해 단톡 만들기
  - 2) ↳ 역할 분담 카톡 보내기:=> 역할 분담 제안 받기
  - 3) 상명대학교 학과 홈페이지 교수 카테고리에 접속하여 관련 전공 교수님 리스트 정리하기
  - 4) 팀원 중 해당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이 있는지 물어보기
  - 5) 컴퓨팅사고와데이터의 이해 이론 파트 복습하기
  - 6) 컴퓨팅사고와데이터의 이해 실습 파트 복습하기
- 스터디상생플러스 팀원 답장 오면 교수님 연락처(메일, 전화번호) 확보하기

이때, 구체화한 Todo List에 따라 한 가지 일을 여러 절차로 나누어서 진행하기도 한다. 정해진 확실한 순서가 없는 업무는 일단 적어두고 상황에 따라 빈 시간이 생겼을 때 이행한다.

### 5. 백업 습관화하기

네이버/다음 카페, 블로그, 티스토리, 외장 하드, USB, 노션, 구글 드라이브, 에버노트, 원드라이브, 원 노트 등 다양한 플랫폼과 앱을 이용하여 백업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해놓은 것들과 수업 자료 파일, 정리본 등을 백업해두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인다. 나는 주로 네이버 카페를 이용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제공한 마이크로소프트 계

공지	스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공지</li> <li>☐ 학술정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BS아카데미개업학원(신촌)</li> <li>☐ 비교과 마일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상명(서울) 메타버스</li> </ul> </li> <li>☐ ROTC</li> <li>☐ 아르바이트</li> <li>☐ 22-1 스터디상생플러스 (공감의 공간)</li> <li>☐ 22-1 TOC (공관 소모임)</li> <li>☐ 22 체인지 (중앙동아리)</li> <li>☐ 제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li> </ul>
<b>교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li> <li>☐ 기초교양</li> <li>☐ 핵심역량교양</li> <li>☐ 공명교양</li> <li>☐ 일반교양</li> </ul>	
<b>[전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과학과★</li> <li>☐ 2022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22-2 (1학년 2학기)</li> <li>↳ ☐ 23-1 (2학년 1학기)</li> <li>↳ ☐ 23-2 (2학년 2학기)</li> </ul> </li> <li>☐ ★공감환경학부★</li> <li>☐ 2022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22-1 (1학년 1학기)</li> <li>↳ ☐ 22-2 (1학년 2학기)</li> </ul> </li> </ul>	<b>어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회화</li> <li>☐ 어학</li> <li>☐ 일본어</li> </ul>
<b>스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BS아카데미개업학원(신촌)</li> </ul>	<b>진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탐색</li> <li>☐ 대학원</li> <li>☐ 부동산</li> </ul>
	<b>자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li> </ul>

정을 이용하기 위해 윈드라이브도 사용해봤지만, 이전부터 쓰던 네이버 플랫폼이 가장 편해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게 되었다.

## 6. 일정 관리 팁

나는 구글 캘린더를 이용하여 모든 일정을 기록해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백업을 위해서이다. 컴퓨터로 접속이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유용하게 쓰인다. 마이크로소프트의 Outlook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어 추천한다.

## 7. 학교 학술정보관 이용하기

그 무엇보다 학교 학술정보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도서, 논문 등의 자료뿐 아니라 타학교의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refworks와 같은 논문 작성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어 유용했다. 또한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프로그램, 자격증 등의 강의도 들을 수 있다.

나는 북마크바 기능에 ‘샘물’과 ‘학술정보관’ 링크를 추가하여 자주 이용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SMU library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자료검색' (Data Search), '연구지원' (Research Support), '서비스' (Service), '커뮤니티' (Community), 'My Library', and '학술정보관 안내' (Library Guide). The '자료검색' tab is active, displaying a list of services and resources. A prominent banner at the top of the page reads '2023년 8월 (2023학년도 1학기) 학위수여논문 제출 안내' (2023 August (2023 Academic Year 1st Semester) Degree Award Thesis Submission Notice).

No.	자료명	주제분야	내용
1	전남의 학습원	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닝365학습관</li> <li>- 어학: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제3외국어 등 15개 과정</li> <li>- IT: OA, OS, 유틸리티어, 인터넷, 프로그래밍, 컴퓨터그래픽 등 12개 과정</li> <li>- IT자격증: 컴퓨터과정, 그래픽응용기능사과정, Auto Cad과정, 사무자동화산업기사, MOS자격증과정, 컴퓨터활용능력과정, 워드프로세서과정,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총 24개 과정</li> <li>- 취업/연결: 일반상식, 직무적성검사, 직무능력, 역량강화, 면접대비 등 13개 과정</li> <li>- 인문/교양: 경제/자산관리, CEO/리더십, 인문/교양 등 3개 과정</li> <li>- 총 1300여 과목의 e-learning 서비스 제공</li> <li>- 모바일 이용방법: 스마트폰에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 한 후 이용가능한 원하는 카테고리 선택 &gt; 과정 선택 &gt; 수강신청 후 바로 동영상 강의 시청 가능</li> </ul>
2	eduwil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일 (일일합격/고득점정/사회복지/세무/법제/법학/마케팅/보통/교정/출입국관리/선거행정/교정노동) 전 과정 제공</li> <li>- 당일 및 소방공무원 전 과정 제공 (일일합격과정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증" 및 "토익" 과정 포함)</li> <li>- 취업 특강 제공 및 모든 공무원 과정 최신강의 제공 (PC/모바일)</li> </ul>
3	주장아득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와이즈리서치 통계분석 리서치 강좌</li> <li>- 통계분석 및 리서치 실무강좌</li> <li>- 통계이론 및 조사방법론, SPSS/SAS/AMOS 등을 이용한 통계분석과정, 마케팅리서치분석, 사회조사분석사 대비 동영상 강의 서비스</li> </ul>
4	주장아득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장아득 e-Learning 자격증 (동영상강의) 서비스</li> <li>- 국가기술자격증 (기사/산업기사), NCS, 상급실기능원</li> <li>- 기타국가공인자격증, 동영상 강좌 서비스 제공</li> </ul>
5	TET 테리스안양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커스인강</li> <li>- 총 243개 과정의 E-learning 서비스 제공 (PC/모바일 가능)</li> <li>- 어학: 194개 과정 제공</li> <li>1) 영어: 141개 과정</li> <li>2) 중국어: 36개 과정</li> <li>3) 일본어: 15개 과정</li> <li>- 취업: 자기소개서 및 면접, GSAT, 대기업 인적성 강의 총 49개 과정 제공</li> </ul>

워낙 방대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학술정보관에서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정보관 이

용교육에 꼭 참여해볼 것을 권한다. 이용교육에 참여하면 비교과 마일리지도 적립되기 때문에 비교과 마일리지 장학금을 노려볼 수도 있으므로 꼭 챙기도록 하자.

14	상명대학교 학술정보관 이용교육 PDF + 총정리 🗨️ 📎
11	DBpia 이용교육 🗨️
10	데이터가이드 이용교육 🗨️
9	삼일아이닷컴 이용교육 🗨️
8	KSDC 이용교육 🗨️
7	EBSCO 이용교육 🗨️
6	Refworks 이용교육 🗨️ 📎

### ▲ 학술정보관 이용교육 정리 내역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등의 외부 시설 말고 열람실과 리딩라운지를 이용하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동기와 동아리 부원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다. 우리 학교 메타버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좀 더 재밌고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자.



## 공부법

### 1. 영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원서 공부법 (선형대수학)

나는 노베이스 상태로 토익을 봤을 때 600점이 나왔다. 따라서 나의 상태를 기준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야기해보겠다. 우선 전공 수업의 원서와 번역서가 모두 필요하다.

선형대수학 과목의 경우 번역서를 통해 정해진 분량을 공부한다.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소단원 하나를 학습목표로 설정하면 적당했다. 다른 전공이나 교양 수업의 경우

와는 다르겠지만 비슷하게 나뉘는 단위가 있을 것이다. 그게 너무 많다면 해당 소단원을 또 여러 개로 쪼개서 자신한테 맞는 분량을 찾으시면 된다. 개념 공부를 마쳤다면 바로 번역서로 문제를 풀지 말고 다시 원서로 개념을 쪽 훑는다. 모르는 어휘가 등장한다면 나올 때마다 검색하지 않고 일단 쪽 체크를 해둔 뒤 마지막에 한꺼번에 차례대로 검색을 한다. 그럼 검색을 하면서 번역서에서 읽은 내용과 매칭이 될 것이다. 또한 한꺼번에 검색을 하면서 얇은 복습이 되기도 한다. 영어 실력이 느는 것은 덤이다. 나는 어휘를 엑셀로 정리해 랜덤 배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틈이 날 때마다 외었다.

## 2. 백지 공부법

1회독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키워드 위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 하는 정도만 한다. 그리고 2회독을 할 때는 키워드를 따로 종이나 워드 등에 적으면서 좀 더 꼼꼼히 파악하며 정리한다. 3회독 시에는 키워드만 보고 해당 파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쪽 백지에 적어보거나 머릿 속으로 떠올려본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빈 파트를 찾기 어려우므로 직접 적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이것도 전공과 교양에 따라 가능한 교과목과 불가능한 교과목으로 나뉘다.

## 3.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 투자!

공부 방법이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해당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공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선배나 동기,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한다. 자신의 공부법이나 방향성에 의심하지 말고 잡생각을 할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회 없이 하는 것이다.

## 어쩌면 가장 쉬운 1등, 45%

생명공학전공 18학번 김민우

### 서론

이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조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요행**은 없다고 일러두고자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에서 성적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과목별로 1등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상위 45%에만 포함되면 매우 높은 성적을, 더 나아가 수·차석까지 차지할 수 있다. 대학에서 높은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 **절대적인 공부량**은 필수적이지만, 적절한 학습전략 및 학습법을 수립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나의 성적은 크게 3학년(2022학년도 1학기, 2학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19학년도 2학기 이후 군 휴학을 하고, 2022학년도 복학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겁이 났다. 2년의 공백기가 매우 크게 다가왔으며, 복학하기 전 나만의 학습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의식하여 강의를 수강한 결과 2022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각각 **4.5**와 **4.36**이라는 우수한 성적 및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생명 엑스퍼트 공모전>을 통해 성적 상위 30%\* 이내에 포함될 수 있었던 나만의 학습 방법 및 전략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2023년도 상대평가 등급 비율 개편 전 A+~A 비율

학번/성명		김민우					
전체성적내역		※ 주의: P/F 교과목은 신원학점 및 평균등급 계산시 제외됩니다.					
(평균등급반영)신원학점		112					
취득학점		115					
평균계		465,50					
평균평균		4,15					
백분율		95,50					
학기별성적							
No	학년도	학기	신원학점	취득학점	평균계	평균평균	백분율
1	2022	동계 계절수업	3	3	13,50	4,50	100,00
2	2022	2학기	22	22	96,00	4,36	97,60
3	2022	1학기	19	19	85,50	4,50	100,00

그림 1. 전체성적내역 및 2022학년도 학기별 성적

## 2. 강의에서 놓치는 부분을 최소화한다.

### 2.1. 속기사 필기법은 강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꽤 큰 도움이 된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긴 하나, 속기사 필기법이란 말 그대로 속기사처럼 필기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대체로 수식이나 화학 구조식을 작성해야 하는 강의 이외에 모든 강의는 노트북으로 필기한다. 나의 강의 수강 방식은 전공과 관련된 교수님의 말씀을 모두 받아 적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사실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모두 필기하는 것은 어쩌면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필기한 강의 내용을 모두 암기하려 하는 것이 아닌, 강의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교수님께서는 PPT를 이용하여 수업하시는 데, 시험공부 시 PPT의 텍스트, 그림만을 보고 정보를 뽑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강의 내용을 속기사처럼 필기하면, 해당 내용의 기술 이유, 활용 방안,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는 내가 직접 필기한 강의 내용(교수님의 말씀)이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작성하려고 노력한다. 속기사 필기법에서 중요한 점은 약간의 ‘강박’이다. 강의 시간 때에는 필기를 받아 적는 행위가 힘들 수 있겠으나, 시험공부 시 매우 도움이 되는 전략이다.

• 에이즈 바이러스 백신만들기가 어려움  
→ gp120이 CD4와 결합해서 침투하는데, 백신? 결합 block이 첫번째 고려사항. 근데 CD에 대한 안티바디를 만들면 면역체계가 무너짐.  
gp120을 통해 T cell에 침투하기 때문에 초기 에이즈 백신은 전부 gp120에 대한 안티바디를 만들고자했음  
그러면 우리 몸에 gp120을 만드는 mRNA를 주입시키면되겠네? → 실패  
→ gp120은 글라이코 프로테인인데, 글라이코실레이션이 굉장히 많은 부위 → 합체가 만들어져서 gp120과 결합하고 싶어도 당이 막 결합되어서 완벽히 결합될 수 없음 → 중화항체가 완벽히 결합하지 못함 → CD4와의 결합차단을 못함 (난제!) 실패요인 2. gp120에 대한 변이가 수천개임, 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생겨도 변이가 일어나서 차단을 못할 즉, 바이러스를 치료하는건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건데 CD4 tcell은 죽이면 안됨.

그래서 우리는 위 과정을 차단하는 지면치료를 하고 있는 것임. 칙테일 요법: 자신한테 필요한 것을 만들 때 프로테아제가 필요한데(긴 단백질을 잘라서 외피 단백질을 만들어야하는데), 프로테아제 인히비터(다른 바이러스에도 치료)를 처리하고 있음 → 지면치료일뿐. CD4를 죽이지 못함. 수술, 성관계만 조심하면 x!

점막면역을 통해 대표적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HIV 바이러스 → 에이즈는 성관계 또는 수혈로 감염됨 → 사실상 HIV 바이러스가 점막면역에 작용하지 않는다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없음

HIV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에이즈는 환자는 아닌 (감염되고 증상이 발현되면 에이즈 환자라고함)

1. HIV 감염자
2. 에이즈 환자(구분해야함)

HIV → CD4 T에 영향을 미침 → CD4는 면역세포 활성에 매우 중요!, 이를 죽임  
랜티바이러스: RNA 바이러스임. 느리게 서서히 사람을 죽임.

HIV는 RNA 게놈이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가짐(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숙주 게놈에 침투시키기 위해 DNA로 바꿔줘야함), 인테그라제(RNA를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 DNA로 바꾼다음에 숙주 게놈에 통합시키는 역할), 프로테아제(단백질 분해 효소인데, 숙주의 게놈에서 자신의 유전물질들을 복제해서 외피 단백질과 조립해서 나갈때 슬라이싱시키는 것이 프로테아제. 자기 조립하는 과정에 필요, 단백질이 길게 만들어지면 불활)

→ gp120은 HIV-CD4에 침투할 때 필요한 단백질 (이것이 결합하는 것임)  
gp120이 Tcell의 CD4에 결합 → 감염 시작 → 자신의 RNA를 넣어줌 → 역전사로 cDNA로 바꿈 → 숙주 게놈에 프로바이러스(바이러스가 되기 전상태) 상태로 숨어 있음 → 이 잠복기가 10-15년 → 때가 되면 DNA가 RNA로 바뀌고, RNA를 통해 단백질로 조립 → 밖으로 배출

####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의한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 CD4 T 세포의 점진적인 감소가 특징
- 랜티바이러스(lentivirus), 느림 *lentus*

그림 2. 속기사 필기법 예시 (수강 과목: 면역학)

## 2.2. 필기를 놓쳤다면 녹음을 이용한다.

필기를 놓쳤다면 녹음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학습 전략이다. 나는 녹음 애플리케이션으로 네이버(주)에서 만든 AI 녹음 앱 ‘클로바노트’를 추천한다(그림 3). <2022학년도 2학기 생명 엑스퍼트 공모전> 최우수를 수상했던 학우도 이용한 녹음 애플리케이션인데, 기본 녹음 애플리케이션과 차별되는 편리한 기능을 가진다.



그림 3. 클로바노트

첫째, AI가 인식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며, 음성과 텍스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녹음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보통, 음성 메모 앱을 이용해 강의를 녹음하면 내가 원하는 강의 내용이 어느 시간대에 녹음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클로바노트의 경우 텍스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텍스트 부분을 클릭하여 해당 시간대의 내용을 쉽게 찾아 들을 수 있다(그림 4). 추가적으로, 그림 4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텍스트 별로 메모 또한 가능하여 추가적인 내용 기입, 관련 정보 기입 등이 가능하다.



그림 4. 클로바노트의 실제 사용사례

둘째, 클로바노트는 네이버(주)에서 만든 녹음 애플리케이션이며, 네이버 아이디만 있다면 핸드폰과 PC의 연동이 가능하다. 즉, 별다른 백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핸드폰을 통해 녹음하면 해당 녹음본을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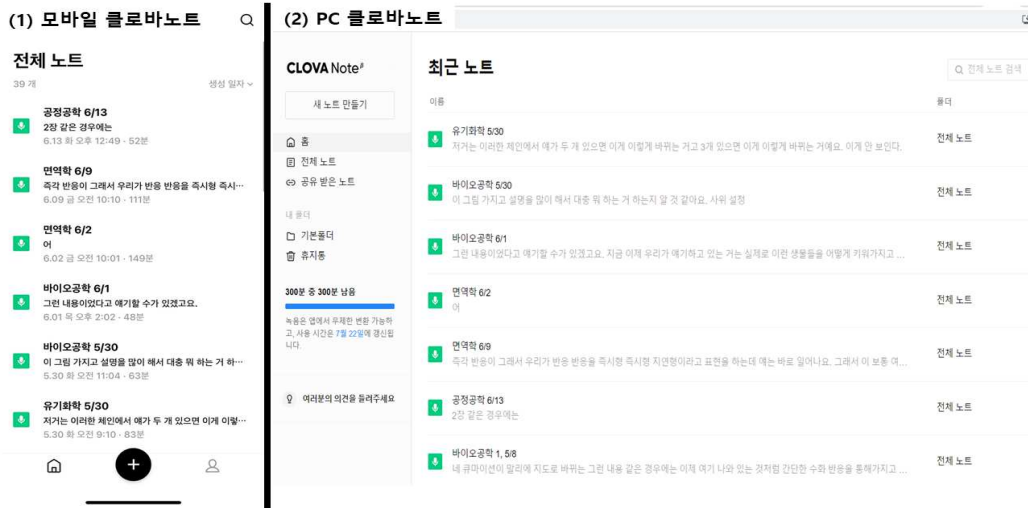


그림 5. 모바일 클로바노트와 PC클로바노트 간의 연동  
(1) 모바일 클로바노트, (2) PC 클로바노트

셋째, 카카오톡 등의 SNS를 이용하여 쉬운 공유가 가능하며 공유받은 노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공유받은 노트의 유효기간: 7일~1년) 클로바노트를 공유받은 사용자는 공유자와 같은 음성 및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으며 편집, 메모 등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림 6. 클로바노트 공유사례  
(좌) SNS인 카카오톡을 이용한 클로바노트의 공유, (우) '공유받은 노트에 저장' 기능

### 3. 가독성은 곧 빠른 학습의 시작점이다.

배운 내용을 매일 복습해도 시험 기간에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 다시 말해, 시험 준비 기간에 공부하는 내용은 본인이 읽기 쉬워야 하며, 본인이 공부하기 편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나만의 필기 노트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손글씨가 매우 느려 배운 내용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시 한번 정리한다. 한글 프로그램 내에서 단락을 설정하여 종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한글을 통해 정리하는 스타일은 크게 두가지이다. (1) 속기사 필기법으로 필기한 내용을 한글에 다시 한번 정리하거나, (2) 키워드 위주로 짧게 정리한다. 이 중에서 나는 (1)번 방법을 선호한다. 이를 통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복습할 수 있다. 또한, 속기사처럼 필기할 당시에는 강의 내용 필기에 혈안 되어 문법, 흐름 등이 엉망이다. 한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읽기 쉽고, 내가 공부하기 편한 나만의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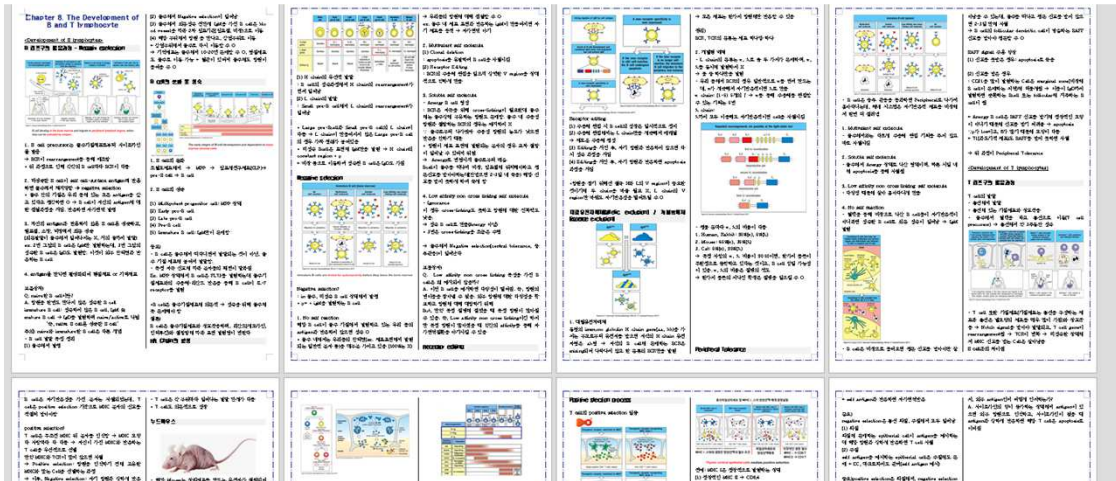


그림 7.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한 복습 및 정리 (나만의 교과서 만들기)

### 4. 기출 문제는 일정 점수 이상을 보장한다.

#### 4.1. 기출 문제는 OT 주간이 끝난 후, 바로 서칭한다.

많은 학생이 시험을 치르기에 앞서 기출 문제를 한 번쯤은 풀어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험 직전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학기가 시작하면서 기출 문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학기가 시작한 후,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과목별 중간 및 기말 기출 문제를 모두 다운로드한다. 이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함만 아니라,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자면, 3주 차 수업이 끝난 후 오늘 배운 내용이 중간고사에 출제되지 않는지 기출 문제를 통해 경향을 파악한다. 만약, 기출 문제에 출제되었던 개념이라면 해당 개념에 특별한 표시(별표 등) 후, 시험 기간 때 더욱 자세히 공부한다. 충분한 경향 분석을 위해 3개년 이상의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추천한다.

← → ↕ ↑ > 2022학년도(3학년) > 2022학년도 2학기(3학년) > 3학년 2학기 기출 > 단백질공학 기출 > 단백질공학 기말 기출

이름	수정한 날짜	유형	크기
2021학년도 2학기_단백질공학_기말고사	2022-09-13 오후 3:12	Microsoft Word ...	22KB
단백질공학_기말고사_2019	2022-09-13 오후 3:27	Microsoft Word ...	21KB
단백질공학_기말고사_2020	2022-09-13 오후 3:21	Microsoft Word ...	23KB

그림 8. 기출 문제 다운로드 사례 (과목명: 단백질공학).

추가로, 2022학년도 개강 일자는 09.01이며,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 한 시점은 09.13이다.

#### 4.2. 과목별 시험 스타일을 파악한다.

이전 기출문제를 서칭하여 과목 별로 출제되는 시험 스타일, 포인트를 파악하면 시험을 더욱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 일례로, 전공 중 “(특정) 개념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설명하시오.”라는 기출문제가 있었다. 이를 통해, 이번 시험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문제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였고, 적절한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에 대한 서술을 이어갔다. 이처럼, 과목 별 출제되는 스타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출제되는 키워드 또한 어느 정도 유사하다. 따라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예상 문제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출 문제 다운로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명대학교 샘플 접속, (2) 통합정보 접속, (3) 수업정보, (4) 고사문제지 조회, (5) 고사 문제지 검색 설정, (6) 기출 문제 다운로드. (3)번 과정부터 그림 9로 나타내었다.

그림 9. 고사 문제지 조회 및 다운로드 방법

(3)수업정보, (4)고사문제지조회, (5) 고사문제지 검색 설정, (6) 기출 문제 다운로드

#### 5. 아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힘

나는 본론에 기술한 학습 전략 중 지금 소개할 메타인지를 가장 주요하게 여긴다. 메타인지적 지식이란 ‘무언가를 배우거나 실행할 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공부의 사전적 의미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이다. 즉, 공부란 아는 것을 다시 복습하는 것이 아닌, 모르는 것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에 치중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의

의 모든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다시 정리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이다. 강의를 듣고, 필기하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어야 하며, 모르는 부분만을 형광펜 처리하거나 따로 노트에 적어 ‘메타인지 노트’를 만든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아는 개념은 확실하게 버려야 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시험공부를 마쳐가는 시점에는 모르는 개념만을 정리한 노트로 공부하며, 시험 당일에는 A4 용지 2-3매 분량의 내용만을 가져가곤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메타인지적으로 공부 시, 자신이 아는 개념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공부할 때, 비로소 전문 지식의 향상 그리고 시험 성적의 함양을 이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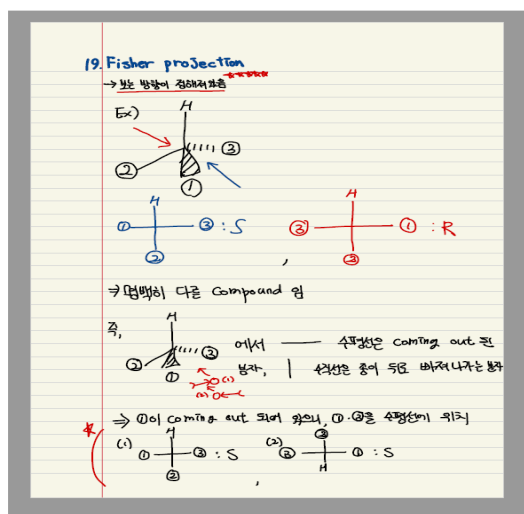


그림 10. 메타인지적 공부법 실제 사례  
(과목명: 에너지유기재료1)

## 6. 전공의 연장선

### 6.1. 교내 프로그램

자신의 전공 지식을 더욱 함양하고 넓히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스터디 상생플러스**, **캡스톤 디자인** 등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는 여러 교내 프로그램이 매 학기 개최된다. 본인 또한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 **스터디 상생플러스**, **캡스톤 디자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일례로, 3학년 1학기, 전공 과목 <생물소재공학>을 수강했다. 이를 수강하면서,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는 버려지는 폐자원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하는 업사이클링 공정이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전 지구적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배웠다. 이에 착안하여, <감 가공 부산물의 기능성 소재화를 위한 항산화 물질 추출 조건 최적화>를 주제로 2022학년도 2학기 **스터디 상생플러스**에 팀장으로 참여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업사이클링 공정, 폐자원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개념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의 성과로는 (1) <2022 한국생명공학연합회 제 7회 심포지엄>에 참여해 포스터 발표하였고, (2) 2022학년도 2학기 **상명창의융복합통합성과대**

회 오름교육 페스티벌 ‘스터디상생플러스’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림 11. 2022학년도 2학기 상명창의융복합통합성과대회 오름교육 페스티벌 ‘스터디상생플러스’ 우수상 사본 (팀명: 감발에서 보물찾기)

## 6.2. 전공 관련 자격증

특정 자격증 취득 시 도움 되는 전공을 수강할 때, 전공과 자격증 취득을 같이 준비하는 것도 효율적인 학습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경우 2023학년도 1학기, 전공 수업 중 일부로 <바이오공학1>과 <생물공정공학>을 수강하였다. 생물공정공학 3판(Michael L. Shuler)은 해당 과목의 교재로 이용되었는데, 이는 생산/제조 산업 관련 자격증인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의 바이블이기도 하다. 전공 과목과 기사 자격증 사이의 많은 중복성이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자격증 필기시험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화학에너지공학전공 학우의 경우, 일반화학 1, 2, 에너지유기재료 1, 2, 분석화학, 기기분석 등의 과목은 ‘화학분석기사’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시험명	구분	수험번호	응시종목	시험결과	일자리찾기 취업지원
2023년 정기 기사 2회	필기	01012476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합격	<a href="#">찾기</a>

"김민우님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필기]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림 12.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필기) 합격 증빙 자료

## 결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조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요행이다. 우리의 목표는 상위 45% 이내이지만, 그 또한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니다. 좋은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선 만점을 받겠다는 약간의 '강박'이 있어야 하며, 절대적인 공부량을 확보해야 한다. 본론에서 이야기한 학습 전략 또한 꽤 많은 공부량을 요구한다. 사람마다 적합한 학습 전략이 다르겠지만 위에 기술한 학습 전략이 일부 학우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학습 전략과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많은 부분 능동적으로 행동했으면 한다. 교내 프로그램, 대외활동 등을 찾아보거나 기업의 인재상, 주요 제품, 비전 등에 대해 찾아보고 학습한다면, 미래에 어엿하고 성공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어있을 것이다.

## 반복하며 이해하는 성실한 학습전략

경영학부 22학번 김유림

### 서론

‘학점을 잘 받아야 취업할 때도 유리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인지, 대학에 입학하며 내 목표는 ‘무조건 학점 4점대로 졸업하기’였다. 1학년 1학기 때는 아슬아슬하게 4점대를 넘겼고, 2학기 때는 3점대 중반인 학점을 받아서 전체 학점이 3점대로 떨어졌다. 학점이 가장 잘 나온다는 1학년 때도 3점대가 나온다면, ‘4점대로 졸업’이라는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아, 2학년부터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전공 평점 4.0 이상일 경우, 졸업시험 면제’라는 조건을 보고, 전공 과목을 모두 A+를 받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했다. 그리고 전공 4과목 모두 A+를 받았다. 단기적이지만 내 공부 목표를 이룬 방법을 공유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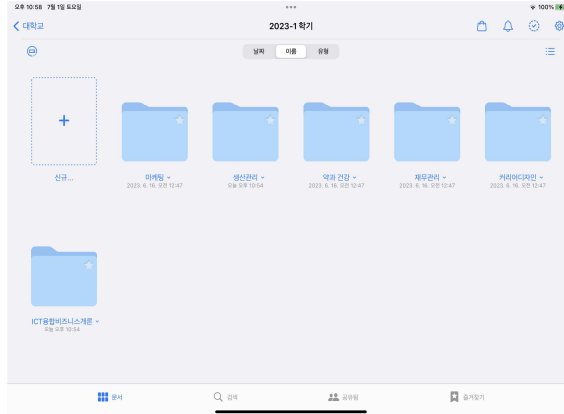
### 본론

내 학습 과정은 ‘수업 듣기 - 복습 - 개념 정리 및 암기하기 - 기출 문제 풀기 - 정리하기’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에서 했던 학습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었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1. 수업 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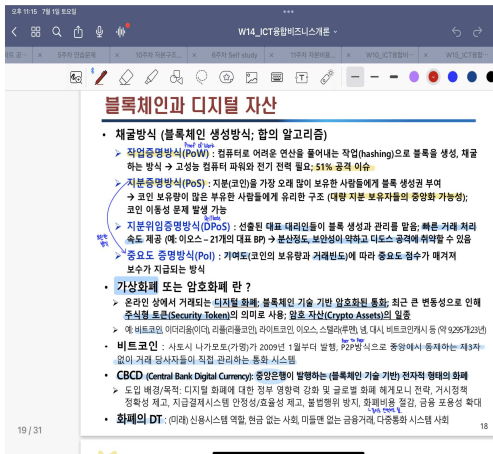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모든 문제는 교수님의 수업자료와 수업에서 출제되기 때문이다. 우선 나는 아이패드의 ‘굿노트’라는 어플을 사용한다. 노트북이나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하면 타자를 통해 더 빠른 필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식을 적거나 화살표나 기호를 사용

하는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플펜슬로 필기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먼저 <그림1>처럼 각 과목별로 폴더를 만들어, 수업 자료를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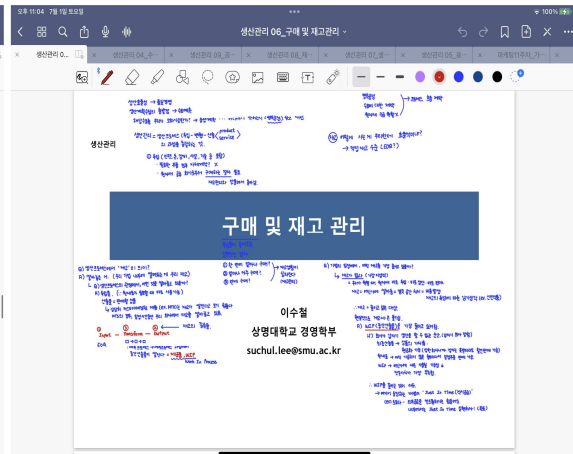


<그림 1> 굿노트 과목별로 폴더 정리

필기에는 <그림2>과 <그림3>에서처럼 주로 4가지 색을 이용했다. 교수님이 칠판 등에 직접 판서하신 내용은 빨간색, 교수님의 말로 설명하신 내용은 파란색으로 필기했다. 교수님이 직접 중요하다고 말하신 내용은 노란색, 교수님이 직접 중요하다고 하시진 않았지만 내 생각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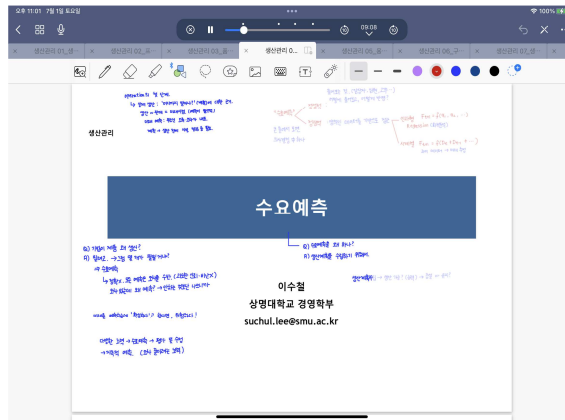
<그림 2> 수업 필기 - 형광펜 사용



<그림 3> 수업 필기 - 펜 사용

또 굿노트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며 수업을 들었다. 수업을 듣다가 필기를 놓친 부분이나, 공부하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때, 녹음을 돌려 듣기 위해서 모든 수업 내용 녹음을 했다. 특히 굿노트의 녹음 기능을 이용한 이유는 녹음을 틀면 그 시간에 적힌 필기가 같이 나타난다는 점이 편리했기 때문이다. <그림4>에서 우측 상단의 연하게 된 부분은 9분 8초 당시 필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 필기가 적힌 시간에 맞추어 왼쪽처럼 진한 글씨로 변한다. 녹음본 9분 8초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생산계획수립' 글자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능을 통해 녹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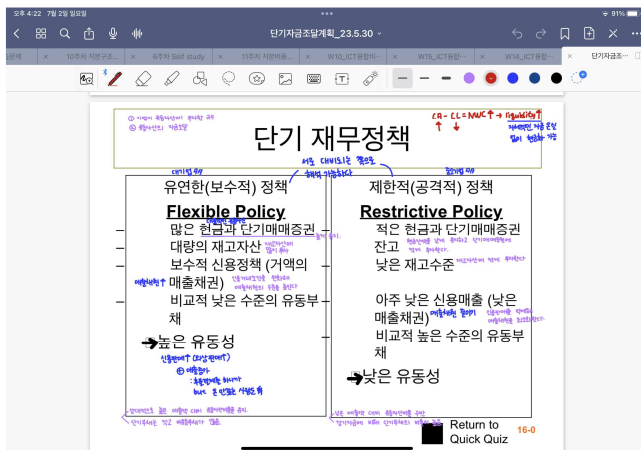
들을 때, 필기에 해당하는 녹음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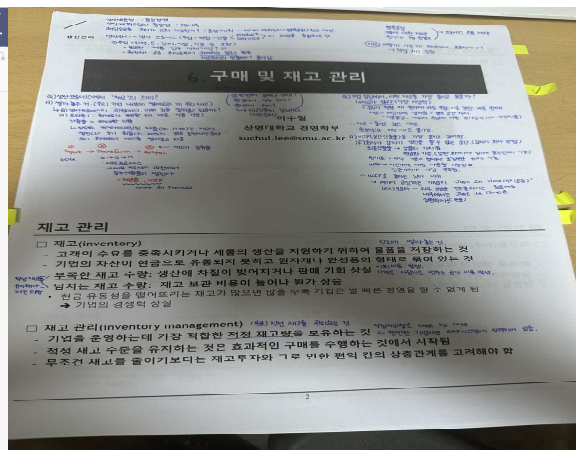
<그림 4> 노트 녹음 기능 활용

## 2. 복습하기

아무리 수업을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수업을 듣는 것에서 공부가 끝나면 안 된다. 수업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습이 필수적이다. 앞서 수업을 들으며 필기한 내용들을 읽으며, 강의 내용을 복습한다. 필기를 놓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수업 녹음을 들으며, 필기를 보충한다.



<그림 5> 책 내용 PPT에 옮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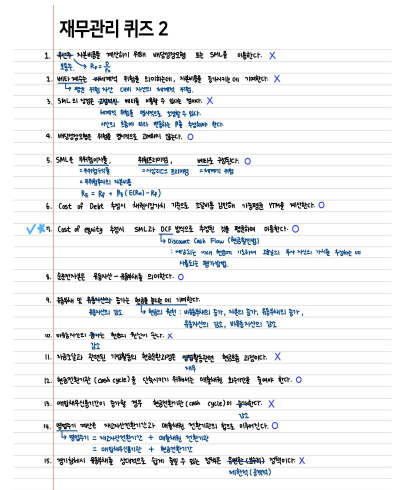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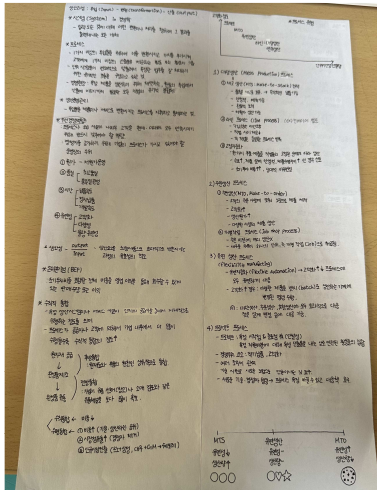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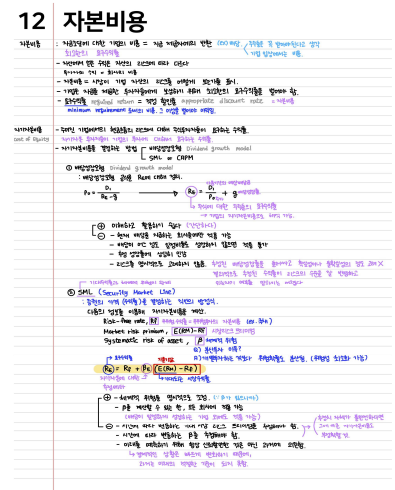
<그림 6> 생산관리 PPT 프린트

이번 학기에 수강한 ‘재무관리’ 교과목의 경우, 수업자료가 PPT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개념에 해당하는 책 부분을 정독한 후에, PPT에 책 내용을 옮겨 적었다. <그림5>에서 처럼, 수업을 들으며 필기한 빨간색, 파란색과 구분하기 위해 연보라색을 이용했다. 또, ‘아이패드로 PPT를 보는데 머리에 잘 안들어온다.’라고 느끼는 과목의 경우에는 <그림 6>처럼 PPT를 프린트해서, 손으로 직접 필기를 옮겨 적었다.

이 단계에서는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다. 계산식이나 디테일한 개념들을 보지만 일일이 암기하지 않고, ‘이 단원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의 전체적인 틀을 잡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암기보다 더 초점을 두었던 것은 ‘수업 흐름 따라가기’이다. 필기를 보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지?’, ‘이 이론은 A에 더 집중하다 보니 당연히 B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 거구나?’처럼 수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개념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더해서 ‘어떤 이론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이론이 등장했구나?’처럼 이해를 하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많아진다.

### 3. 개념 정리 및 암기하기



<그림7> 재무관리 개념정리본(굿노트) <그림9> 생산관리 개념정리본(손글씨) <그림8> 재무관리 퀴즈 선지 정리

‘복습하기’ 단계에서 큰 틀을 잡았다면, 이제는 세세한 내용을 볼 차례이다. PPT 여러 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다. <그림7>처럼 굿노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림8>처럼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 손 글씨로 쓰기도 했다. 앞서 간단하게 살펴봤던 내용들을 눈으로 한 번 보고, 손으로 한 번 쓰기에 머리에 더 잘 각인된다. 또, 내용들을 내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을 찾기도 쉽고, 개념을 공부하기에도 훨씬 편리하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다면, 외울 차례이다. 앞선 단계에서처럼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내용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외워야지만 시험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 이론의 특징, 장단점, 계산식 등 문제 풀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암기한다. 잘 안외워지는 내용이나, 헛갈리지만 반드시 외워야 하는 내용은 <그림7>에서처럼 정리본에 노란색 형광펜을 사용해 표시해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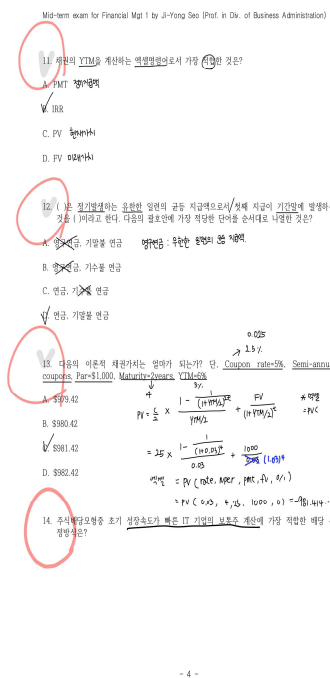
만약 퀴즈나 과제 등 수업자료 이외에도 공부할 내용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정리한다. <그림9>은 ‘재무관리’ 교과목의 퀴즈 선지에 대한 정리본이다. 퀴즈 문제를 검은색으로 적고, 그 답을 파란색 O/X로 적었다. 선지가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에 대한 풀이는 남색으로 적었다.

### 4. 기출 문제 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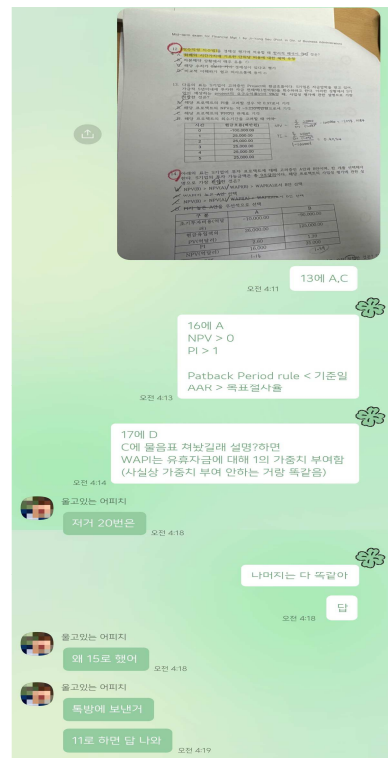
다음은 공부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푼다. 샘플 포털에서 기출 문제를 다운 받고, 이를 굿노트에서 연다. ‘샘플 통합정보-수업정보-고사문제지조회’에서 기출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다. 포털화면은 <그림10>과 같다.



<그림10> 기출문제 찾는 방법



<그림11> 재무관리 기출 문제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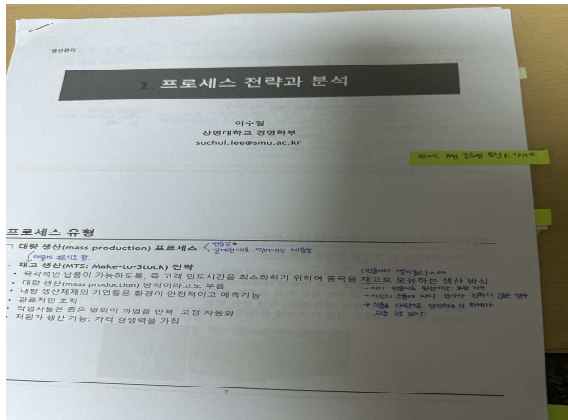


<그림12> 친구와 서로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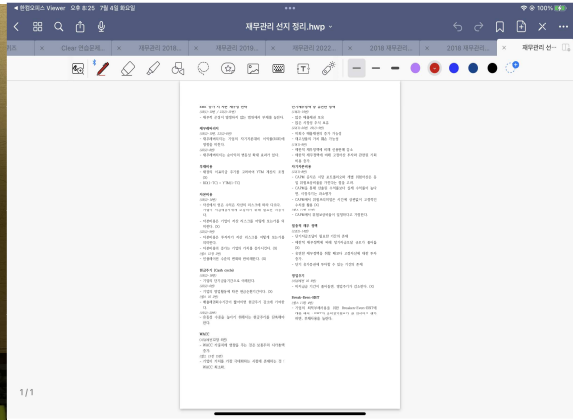
하지만 포털에는 기출 문제만 공개되어 있고, 답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를 푼 후,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와 답을 맞추어 보며, 답을 찾았다. <그림 12>처럼 ‘나는 이렇게 풀어서 이 답이 나왔는데, 너는 어떻게 풀었어?’, ‘이거 모르겠는데 어떻게 풀어?’라고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며 함께 공부했다.

### 5. 정리하기

이 단계는 공부 마지막 단계인 만큼, 주로 시험 마지막 날의 루틴이다. 이 단계는 정말 마지막 정리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림13>처럼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나, 과제 퀴즈, 기출에서 나왔던 선지 중 헷갈리거나 모르겠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외운다. 정말 마지막까지 외워지지 않거나 헷갈리는 내용은 <그림 14>처럼 인덱스를 사용하여 표시한 후, 시험 시작 직전까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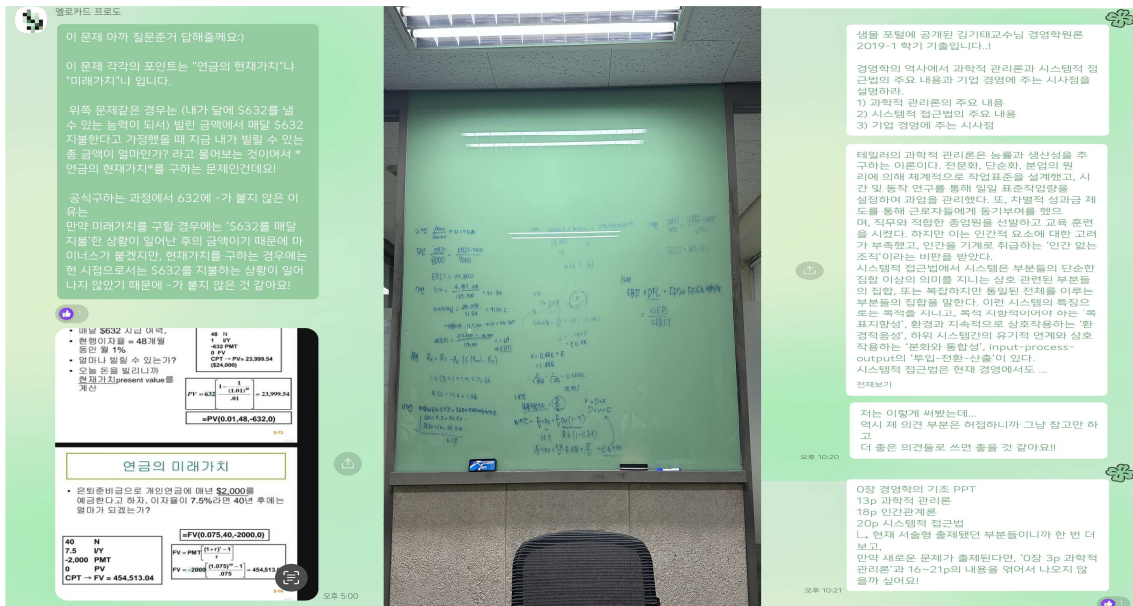


<그림13> 인덱스 사용



<그림14> 재무관리 선지 정리

## 6. 프로그램 추천



<그림15> 재무관리 튜터링 (튜터 참가)

<그림16> 재무관리 튜터링 문제풀이

<그림17> 경영학원론 튜터링 (튜터 참가)

1~5의 내용이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더해 도움이 많이 되었던 '상명튜터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하고자 한다. 우선 나는 1학년 1학기에 <경영학원론> 과목의 튜터로 참여했고, 이번 학기에는 <재무관리> 과목의 튜티이자 <경영학원론>의 튜터로 참여했다. 작년의 경우, 대학교에 처음 와서 처음으로 배우는 전공과목이라는 부담감과 첫 대학 시험이라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다. 튜터링에서 튜터 선배에게 시험 팁, 과제 팁 등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번 학기에 튜티로 참여한 <재무관리> 튜터링 역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과목 특성상 어려운 내용이 정말 많은데, <그림 15>처럼 튜터 선배에게 질문할 수 있고, 개념 설명을 한 번 더 들으며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 그림<16처럼> 함께 기출 문제를 함께 풀이하며, 문제를 푸는 데도 익숙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뭐든지 척척 해내고, 좋은 성적을 받은 선배가 너무 멋있었다. 그래서 ‘나도 꼭 좋은 성적을 받아서 튜터로 활동해야지!’라며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좋은 성적을 받았고, 올해는 <경영학원론>의 튜터가 되었다. 튜터로서도 얻은 것이 많았다. 튜터링을 진행하는 과목을 다시 복습할 수 있었고, 튜터로 참여한 후배들과 친해질 수도 있었다. 또, 튜터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는 후배들에게 감동받고, 뿌듯함도 많이 느꼈다. ‘상명튜터링’은 튜터, 튜티 무엇으로 참여해도 정말 얻을 것이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에, 추천한다.

## 마무리하며

나는 늘 공부에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남들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방식은 그 과정에서 정립하게 된 나만의 학습 전략이다. 그래서 내 이런 학습 전략이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쩌면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했을 때, 좋은 성적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개념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많았기에, 적어도 나에게는 가장 좋은 학습 전략이다. 이런 나의 학습 전략이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

## Chat GPT랑 같이 게임 제작 동아리 활동하기

게임전공 21학번 **강문석**

3학년이 되어 수업을 들으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나의 게임 개발에 관한 실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과에서 하는 게임 개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 팀을 짜서 게임을 하나 제작했다. 아직 모자란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열심히 참여했고, 그 결과로 실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만족스럽게 처음 생각한 기획대로 제작된 나만의 게임을 만들었다. 이번 엑스퍼트 공모전을 통해 이 개발 활동 경험을 소개해보자 한다.

일단 이번 개발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기획, 구현, 개선이다. 먼저 어떤 게임을 어떻게 구현할지 기획하고 그 기획에 맞춰서 UNITY라는 게임 엔진을 통해서 구현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임을 해보면서 개선하는 과정으로 이번 활동이 진행되었다.

먼저, 게임의 시작이 되는 기획 단계도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그렇게 첫 회의에서는 6개의 미니게임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멀티태스킹 게임을 만들기로 정했다. 그 뒤 회의를 통해서 화면에서 진행될 6개의 미니게임을 정했다. 그렇게 정한 6개의 미니게임은 WASD키를 이용한 네 방향에서 날아오는 투사체를 막는 미니게임, 스페이스바를 이용해 랜덤한 주기로 생기는 장애물을 점프해 피하는 미니게임, IJKL키를 이용해 멈추지 않는 캐릭터를 벽에 닿지 않게 방향을 조종하는 미니게임, UH를 이용해 방패를 위아래로 움직여 날아오는 투사체를 막는 미니게임, QE키를 이용해 캐릭터의 방향을 조종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미니게임, O키를 이용해 캐릭터를 해엄치게 해 장애물을 피하는 미니게임이다.



그림 1. 미니게임 소개(1)



그림 2. 미니게임 소개(2)

# UI 구성 게임 화면



그림 3. 미니게임 소개(3)

이렇게 어떤 미니게임을 만들지를 정했으니 그 다음은 기획을 토대로 실제로 구현하는 단계이다. 흔히들 말하기를 코딩은 컨트롤 C와 컨트롤 V로 이뤄진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미 만들어진 코드가 많고 이 코드를 잘 검색해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검색, 구글링을 잘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코딩의 속도와 작업물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구글링을 잘 하는 것이 좋은 개발자의 덕목이라고도 하는데 대화형 인공지능 Chat GPT의 등장으로 이 과정이 한결 수월해졌다. 기존 구글링은 명확한 검색어로 검색해야 하고 검색 결과로 나온 것도 여러 곳에서 얻은 정보를 조합해 개념을 이해하고 코드를 사용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Chat GPT를 이용하게 되면 코드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그리고 각 코드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어 더욱 편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작업의 능률이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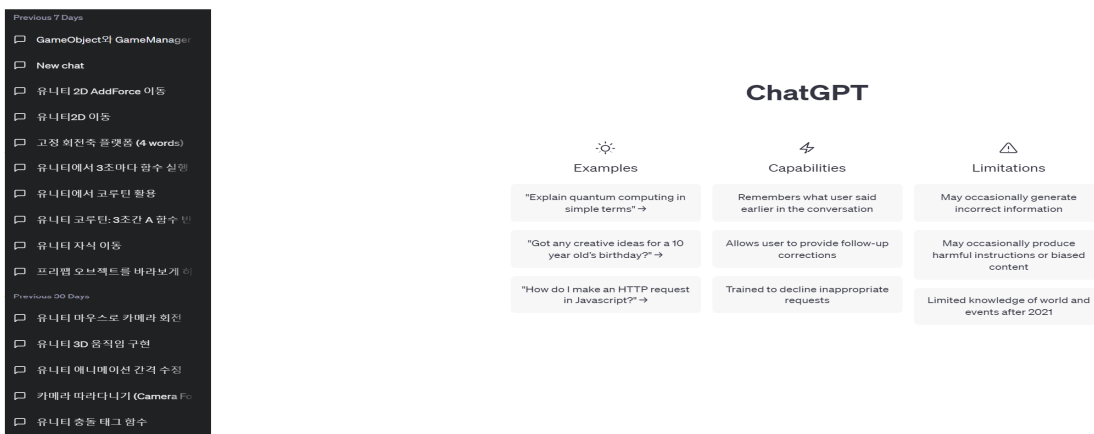


그림 4. Chat GPT의 무수한 도움을 받은 모습

문서 유니티에서 3초간 A함수를 반복하는 코드를 코루틴으로 짜줘



아래는 유니티에서 3초 동안 A 함수를 반복하는 코루틴을 작성하는 예제입니다.

```
csharp
using System.Collections;
using UnityEngine;

public class CoroutineExample : MonoBehaviour
{
    private IEnumerator Start()
    {
        while (true)
        {
            A(); // A 함수 호출

            yield return new WaitForSeconds(3f); // 3초 대기
        }
    }

    private void A()
    {
        // A 함수의 내용을 여기에 작성하세요
        Debug.Log("A 함수 실행");
    }
}

```

이 예제에서는 'Start' 함수 내에서 무한 루프를 돌면서 'A' 함수를 호출하고 3초 동안 대기하는 방식으로 반복 실행합니다. 'yield return new WaitForSeconds(3f);' 구문을 사용하여 3초 대기하는 것을 구현하였습니다. 'A' 함수 내용을 원하는 기능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위 코드를 유니티 스크립트에 추가하고 해당 스크립트를 게임 오브젝트에 연결하면 3초마다 'A' 함수가 실행됩니다.

그림 5. Chat GPT의 도움을 받는 모습

Chat GPT를 활용하는 팁이 있다면 최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하나씩만을 물어볼 때 최적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 같다. 위 사진도 원래는 3초 간격으로 투사체를 소환하는 코드를 짜야하지만 코드를 분리해 A라는 함수를 3초 간격으로 반복하는 코드를 물어보고 A라는 함수를 투사체를 소환하는 함수를 구현해서 원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이렇게 물어보아야 하는 내용을 작게 잘라서 물어보면 관련 개념만을 알려주어 이해하기 편하고 더욱 쉽고 빠르게 찾는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해 전체 코드를 짜서 기획을 바탕으로 게임을 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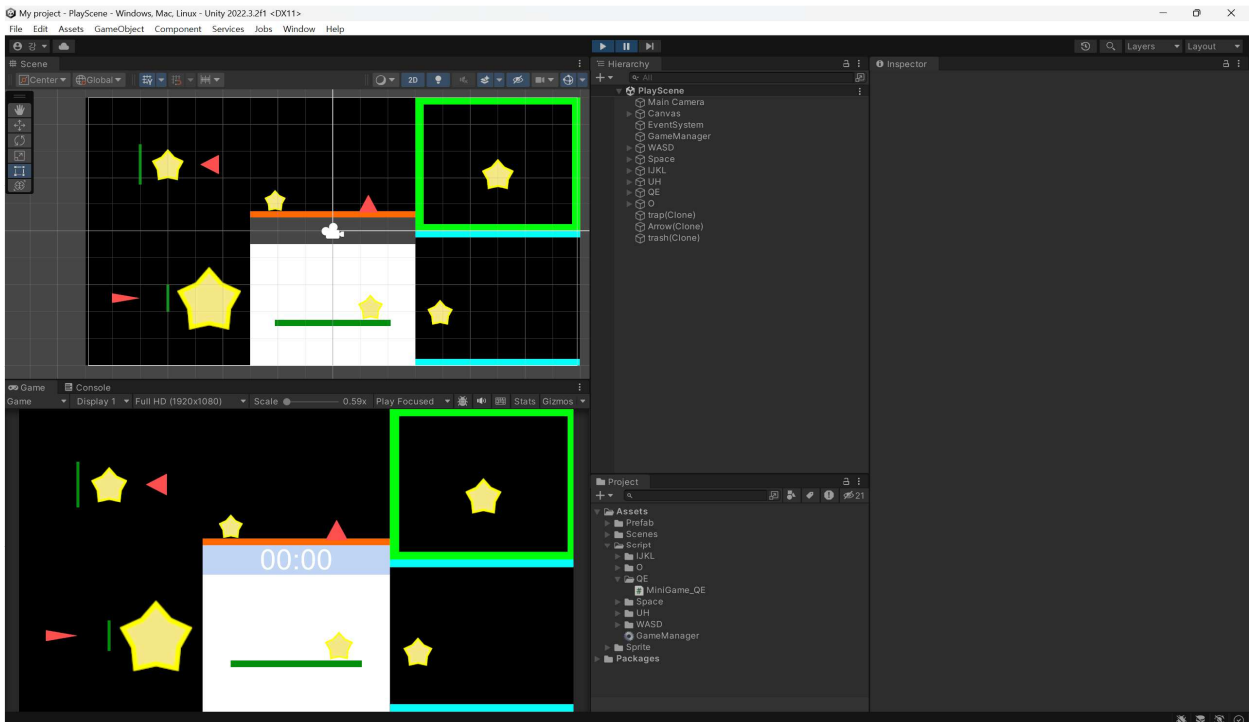


그림 6. 구현한 게임의 모습

마지막으로 개선 단계이다. 구현까지 한 결과 게임은 돌아가지만 현재 상태로는 사운드도 없고 메인 화면도 없으며 게임 오버 화면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자체적인 평가 결과 그래픽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각 미니게임에 특징에 맞는 컨셉으로 그래픽을 넣기로 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6개의 미니게임에 각 미니게임에 컨셉에 맞는 도트 그래픽을 추가했다.



그림 7. 도트 그래픽을 추가한 모습

사방에서 날아오는 투사체를 막는 게임은 물개를 공격하는 범고래를 막는 게임으로, 장애물을 점프하는 게임은 토끼가 거북이를 피하는 게임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종하는 게임은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펭귄을 조종하는 게임으로, 방패를 위아래로 움직여 투사체를 막는 게임은 흰동가리가 산호를 지키는 게임으로, 양옆으로 움직이게 조종하는 게임은 꽃게가 균형을 잡는 게임으로, 헤엄치는 게임은 개복치가 천장이나 바닥에 닿지 않고 적정 높이를 잘 유지하는 게임으로 그래픽을 추가했다. 그래픽에다가 원래는 게임 화면만 있었지만 메인화면과 게임 방법 설명을 추가하고 게임 오버가 되면 나오는 게임 오버 화면을 추가해서 좀 더 그럴 듯한 게임을 만들었다. 거기에다가 원래 없던 게임의 이름을 바다라는 컨셉과 임팩트를 위해 바다이야기에서 따와 바다의 얘기로 정해 게임 개발을 마쳤다.

수업이나 프로젝트가 아닌 개인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것이 거의 처음이었는데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외부의 압박없이 만들다 보니 더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활동을 통해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었고 잘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되어 공부할 수 있었다. 게임을 만들어보니 그래픽같은 부분에선 아쉬움을 느꼈지만 그 외 구현과 같은 부분은 만족스러웠다. 특히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처음 기획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구현할 수 있던 점이 가장 성취감을 느끼게 해줬다. 개인적으로 진행했으면 막히는 부분이 있고 힘들게 만들었을 것 같지만 동아리 팀원과 Chat GPT의 도움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개인 작품을 만들어 가면서 실력을 쌓을 계획이다.

이 게임의 시연 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30L-7Gj\\_Ig](https://www.youtube.com/watch?v=-30L-7Gj_Ig)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A부터 Z까지, 키워드 분석을 통한 스마트한 공부 비법

행정학부 18학번 **김의종**

### 서론

보람찬 방학을 보내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서 취업, 공모전 관련 글들을 보던 중 우연히 엑스퍼트 공모전에 대해 알게 되었다. 글을 살펴본 뒤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에 참여해 학우들에게 나만의 필승 공부법을 알리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참가를 결심했다. ‘키워드 분석’이 핵심이 되는 이 학습전략은 2학년 때 평균 2점대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며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만들었던 나만의 공부법이다. 3학년 1학기 때 이를 최초로 적용한 이후 매번 4점대의 학점을 받으며 성적을 큰 폭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을 몰라 시행착오를 겪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과거의 나처럼 공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에게 나만의 ‘A to Z 분석 학습전략’을 소개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미수구분	학점	평균	등급
교선	3	12.00	A
교선	3	13.50	A+
교선	3	13.50	A+
교선	3	13.50	A+
1전선	3	12.00	A
2전선	3	12.00	A
2전선	3	9.00	B

미수구분	학점	평균	등급
교필	2	9.00	A+
교선	3	13.50	A+
1전선	3	12.00	A
1전선	3	13.50	A+
2전선	3	13.50	A+
2전선	3	12.00	A

분반	미수구분	학점	등급
3	2전선	3	A
1	2전선	3	A+
2	2전선	3	A
1	교선	3	A+
1	교선	3	A+

〈사진 1〉 공부법 적용 후, 3학기 동안의 성적표.  
중간의 ‘B’학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후술 하겠다.

### 유비무환: 분석을 통한 철저한 준비

학습법을 만든 뒤 좌우명으로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를 프로필 메시지에 걸어두었다. 준비를

미리 해 두면 근심걱정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험공부만큼 이 사자성어가 잘 적용되는 영역은 없다고 생각한다. 시험의 본질은 결국 시험 준비 과정에서 누가 더 본인의 강점을 잘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대한 보완했는지를 겨루는 싸움이다.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목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목표 설정부터 시험을 보는 순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하면 철저한 분석을 통한 준비가 백전백승을 불러온다는 것이 이 공부법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분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차근 차근 설명하고자 한다.

## 1. 시작은 언제나 목표 설정부터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분석'이지만, 이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영역이 존재한다. 바로 목표 설정이다. 목표 설정은 동기부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먹는 것, 자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 영역에서부터 출세, 승진, 명예욕과 같은 사회적인 욕구 영역에서까지 인간은 '~하고 싶다.'와 같은 동기에 지배되며 살아간다. 목표 설정은 이와 같은 동기부여를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다. 목표 설정은 '~해야 한다.'라는 동기에 대해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며, 이를 공부에 적용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해내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잘 세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목표의 계층화에 있다. 즉, 상위 목표, 중위 목표, 하위 목표의 계층을 설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위 목표는 중위 목표를, 중위 목표는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설정된다.

예를 들어, 나는 이번 학기 모든 과목에서 최소 A 이상 학점을 맞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상위 목표: 모든 개별 과목 성적 최소 A 이상, 중위 목표: 주간 공부 계획표 작성(일정한 공부 시간 확보로 상위 목표 실현), 하위 목표: 과목별 세부 학습 계획 수립(과목별 분석을 통해 공부법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중위 목표 이행),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누어 목표를 구체화했으며 이후 4.3점이라는 학점을 받아 학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목표 설정은 계층화를 통해 최대한 구체화할수록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

## 2. 예습: 키워드를 통한 과목 특성 분석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땅을 잘 다지고 이를 지탱할 기둥과 같은 기반을 잘 다지는 것이다.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을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목표 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위 목표다. 과목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부 계획을 수립하여 학습한다면 중위 목표와 상위 목표 실현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 답은 '키워드' 분석에 있다. 수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키워드를 추려내 이를 한 학기 동안 예습, 수업, 복습할 때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된다. 이 작업은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 뽑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 시험 과목은 그 경향이 일부 바뀔 수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수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들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암기과목들은 수업 때 다루는 개념에 한

해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키워드 분석 작업은 한 학기의 공부 방향성을 잡고 시험을 확실하게 대비하는 등 나만의 필승 카드로서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다. 키워드 분석 시에는 최근 기출 3개년치 정도의 양을 분석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보다 적을 시에는 신유형 또는 핵심 키워드 대비가 미흡해질 수 있으며 이보다 많을 시에는 대비하는 수험생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최근 경향에 벗어난 오래된 자료로 잘못 학습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또한 시기는 방학 또는 늦어도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전인 1주차 때 전부 완료하는 것이 좋다. 키워드 분석을 끝내고 수업을 들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이해도 차이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한 학기 분량의 키워드 분석을 전부 마쳐놓는 것이 좋다. 분석을 끝낸 뒤 수업을 듣게 된다면 마치 시험 답안지를 옆에 두고 수업을 듣는 느낌마저 들 수 있을 정도로 수업 이해도가 대폭 올라간 나 자신을 볼 수 있다.

한편, 간혹 기출 자료가 없는 수업이 있는데 이 경우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ppt나 교재를 기반으로 예습을 해야 한다. 이 때에도 자료를 통해 핵심 키워드를 분석, 정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교재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나 수업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단계인 '수업 필기' 단계로 바로 넘어가야 한다.

Mid-term exam for Financial Mgt 1 by Ji-Yong Seo (Prof. in Div. of Business Administration)

**재무관리(1분반) 중간고사**

(2022. 4.20. 11:00~11:50)

(주목 : 각 문제에서 답지 A,B,C,D는 OMR카드 위한 적당시 각자 순서대로 ①,②,③,④에 해당)

1.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존하는 기업형태는 무엇인가?  
A. 합법회사(General partnership)  
**B. 합법회사(Limited partnership)**  
C.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D. 주식회사(Corporation)
2. 주식회사의 궁극적인 목적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A. 이익의 극대화**  
B. 비용 최소화  
C. 자본의 시장가치 제고  
D. 시장평가를 제고
3. 주식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나타낸 식은? 단, P는 주가, D는 배당금, g는 배당성장률  
A.  $(P_0/D_1) - g$   
B.  $(D_1/P_0) / g$   
C. 배당수익률-배당성장률  
**D. 배당수익률+가분이익률**
4. 당선은 전자제품 구입을 위해 20,000달러를 대출받으려고 한다. 월 복리이율 연이자율 6%에 차입이 가능한데, 3년 만기 대출을 받는다면 월 **리보백을 계산하는 액셀시트**로 적합한 것은?

★★★ 중간고사 알아야 할 개념들

- 적정주가 측정
- (경제성 평가기법)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내부수익률법(IRR), 수익성지수법(PI), 순현재가치법(NPV)의 개념, 활용방법 학습
- 적정가치의 개념, 측정
- 회사형태의 종류, 장단점
- 주식회사의 궁극적 목표
- 주식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나타낸 식
- 월 지불액 계산(액셀식으로도 출력 가능)
- 액면이자를 계산
- 주식평가모형
- 채권의 이표율
- 채권 가격과 수익률 간의 관계
- 예상 투자비용 계산
- 투자안 선택(사업성 평가)
- 평균회계이익률법
- 자본예산 평가방법
- 채권가치의 개념, 측정
- 채권의 시장 요구수익률
-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현금흐름
- 부채의 개념
- 배당 추정방식
- 만기수익률

Mid-term exam for Financial Mgt 1 by Ji-Yong Seo (Prof. in Div. of Business Administration)

A. -PMT(0.05,3,-20000,0)

**B. =PMT(0.0050,36,20000,0)**

C. =PMT(0.05,3,20000,0)

D. =PMT(0.0050,36,-20000,0)

5. \$1,000의 액면가 가진 채권의 시장가격이 \$1,050이다. 매년 \$50을 연가당액으로 수령할 경우 **액면이자율(coupon rate)**은 얼마인가?

A. 4.76 %

**B. 5.00 %**

C. 5.24 %

D. 5.48 %

6. 주식평가모형중 **원액배당성장모형**에 관한 설명중 가장 적합한 것은?

A. 현금흐름은 다음기에 맞게 되는 배당금액이다

B. 할인율로서 사용되는 것은 주식부자의 요구수익률과 배당성장률의 차이이다

**C. 배당금액이 항상 일정하므로 너트키의 배당액에요 주식부자의 요구수익률로 할인한다**

D. 요구수익률이 배당성장률보다 고다는 가정하에 해당 모형이 성립한다

7. **채권의 이표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A. 명시이자율이라고도 한다

**B. 채권 발행시에는 공식적으로 만기수익률과 동일하다**

C. 이표율 계산시 액면가에 이표율을 곱한다

D.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시 시장수익률이다

〈사진 2〉 기출을 토대로 키워드 분석(빨간 부분) & 문제 분석(노란 부분) 후, 따로 정리한 메모장 필기 부분

### 3. 수업 필기: 첫째도 집중, 둘째도 집중하며 내용 분석

‘분석’ 공부법을 통해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키워드들을 예습하고 왔다면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점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수업은 모두가 ‘동시’에 ‘같은’ 개념을 학습하는 시간인 만큼 여기서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나한테는 마이너스, 경쟁자들에게는 플러스로 작용하는 시간이다. 즉, 여기서는 ‘수업내용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귀 기울이며 집중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 1) 커피 마시기

집중에 있어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단연 졸음이다. 수업 시간에는 이것이 특히 치명적이어서 잠깐 졸았는데도 수업 내용을 대부분 놓쳐버려 곤란했던 상황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수업 전에 항상 커피를 지참한다. 하지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하루 섭취 기준을 정해 마시는 것이 좋다. 나는 하루에 커피 2잔 이상은 마시지 않겠다는 나만의 룰을 정했으며, 섭취 시간대를 점심시간 이후 식곤증이 몰려올 시간대인 오후 1시~오후 4시로 설정했다. 이처럼 ‘나만의 룰’을 통해 집중력을 유지하면서도 몸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녹음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이 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 도저히 수업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녹음기를 켜야 한다. 수업 내용을 놓치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학습에 큰 마이너스가 되며 복습에서도 수업에서 진행했던 개념을 모르는 채로 진행해야 하므로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때문에 집중력 유지가 안되겠다 판단이 된다면 바로 녹음기를 켜서 수업 내용을 나중에라도 복기할 수 있도록 남겨놔야 한다. 단, 매 수업 시간마다 녹음기를 켜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매 수업시간마다 녹음을 하면 ‘어차피 녹음 다 해놨는데 나중에 복습할 때 들어야지.’라는 식으로 수업 태도가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러한 태도로 녹음을 믿고 공부를 미루다가 결국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채 시험장에 들어간 적이 있다. 이렇듯 나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라도 수업 필기는 그때그때 바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고 녹음은 피치 못할 상황에서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 3) 구어체로 정리, 핵심은 ‘키워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은 곧 시험 출제자이기도 하다. 즉, 수업은 출제자가 시험 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해설 강의와도 같다.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의 말 중 중요한 부분들을 빠르게 받아적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나는 교수님의 말을 그대로 구어체로 받아적는 것을 추천한다. 교수님들 중에 말이 빠르거나 또는 개념과 원리의 양이 방대해 빠른 필기가 강제되는 수업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이를 받아적으면서 정리하는 과정까지 거친다면 다음 수업 내용을 놓치기가 매우 쉽다. 때문에 다소 지저분해보이더라도 일단 받아쓰기의 느낌으로 교수님의 말을 그대로 받

아직은 방식을 추천한다. 받아적은 메모는 추후 복습 과정에서 문어체로 다듬고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거치면 된다.

또한, 예습 때 정리한 키워드를 통해 교수님의 말 중 어느 부분이 중요한 파트인지를 알고 이를 중점적으로 필기할 수 있다. 이것은 타 학생 대비 매우 큰 강점으로 작용하는데, 학기 초반 아직 수업의 감을 잡지 못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교수님의 말을 그대로 대부분 받아적은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예습에서의 '키워드 분석'이 완성되어 있다면 교수님의 말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캐치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결국 예습에서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둥을 잘 세운 사람만이 구름까지 닿는 마천루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 4) 암기 위주 VS 계산 위주

단, 필기하면서도 수업이 암기 위주로 진행되는지, 계산 위주로 진행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며 필기해야 한다. 수업 필기도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받아 상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것이므로 방향성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 개념 위주로 필기하고 공부했는데 정작 시험에서 계산 문제들만이 나온다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들 것이다. <사진 1>의 성적표 중 'B'로 체크된 과목이 그 사례다. 당시 계산 문제 위주인 기출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시험 범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개념 정리에만 집중하는 우를 범했었다. 그 결과 해당 학기 가장 많은 공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때는 문제에 손도 못 댄 채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성적은 3학기 중 가장 낮은 성적을 받은 과목이 되고 말았다. 이 때의 경험을 통해 나는 '분석'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분석의 '방향성'도 공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다음 학기 같은 교수님의 수업에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노력했는데, 개념 위주 정리보다는 계산식과 원리 위주의 수업 필기를 통해 A라는 성적표를 받으며 이전의 실수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과목 특성을 파악하고 시험이 개념 암기 위주인지, 계산과 풀이 위주인지를 구분해 이를 필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 표현주의, 20세기 초 독일에서 일어난 예술 운동

☞ 미술에서 자연의 재현은 부차적이며, 주연의 표현이야말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

☞ 선에 의한 형태의 강조, 색채에 있어서 단순화, 평면화, 즉 색채, 형태를 통해 작가의 내면 세계 표출

▷ 몽크, 코코슈카, 키르히너

- 몽크: 현대인들의 불안감을 그려냄.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향, 어릴 때 부모님이 죽은 고향, 인간의 두려움을 그림에 표현함

- 코코슈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내면 중시, 왜곡된 형상 구현

- 키르히너: 날카로운 각도를 사용, 화면 전체에서의 구도를 통해 불안감을 드러냄. 거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 자신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모두 알 변화

- 놀다: 외곽선을 사용하지 않음

##### ▶ 순현재가치(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최초 투자 시기부터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의 연도별 순현재의 흐름을 각각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

- Step 1: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
- Step 2: 이러한 리스크 수준의 프로젝트의 요구수익률을 추정
- Step 3: 현금흐름의 현재가를 계산해 초기투자액을 차감하여 순현재가 계산

☞ Net Present Value: 모든 현금흐름의 현재PVs의 합계

[참조] <https://m.blog.naver.com/707221605098190>

$$NPV = CF_0 / (1+R)^0 + CF_1 / (1+R)^1 + \dots + CF_n / (1+R)^n + CF_n / (1+R)^n$$

★(n은 1부터 1까지)  $NPV = \sum_{t=1}^n CF_t / (1+R)^t + CF_0$  (역셀) OR

★(n은 0부터 1까지)  $NPV = \sum_{t=0}^n CF_t / (1+R)^t$  (계산기)

☞ 순현재가치 투자결정기준

※ NPV = 현재가치 유입량 - 비용

- NPV = 0 → 프로젝트의 현금유입이 '약' 투자자본을 상환하고 요구수익률을 제공할 정도임(이게 내부수익률법, IRR임)

- NPV > 0 → 프로젝트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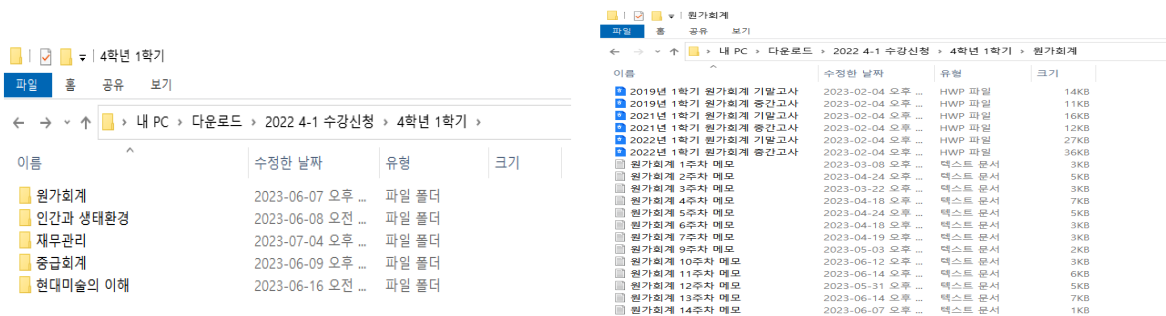
☐ NPV > 0의 뜻: 프로젝트가 기업에 가치를 더할 것이 예상되어 소유자의 부를 증가시킬 것이다.

☞ V(Value of Fund, 기업가치의 증가와 직접 관계가 있음)

#### <사진 3> 개념 위주 노트 필기(좌) VS 계산 위주 노트 필기(우)의 비교

#### 4. 복습: 정리 정돈의 시간

수업 필기까지의 과정을 거쳤다면 우리에게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 구어체로 메모된 노트 필기가 주어져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구어체 필기를 문어체로 다듬고, 재배열해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리를 위해 필기의 내용과 문맥을 다시 한 번 읽고 숙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복습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더해 필기 내용들이 문어체로 다듬어지므로 향후 시험 공부에 참조할 훌륭한 나만의 수업 참조 파일이 만들어지게 된다. 예습 때 정리한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정리했으므로 시험 대비에도 특화되어 있다는 건 덤이다. 이를 매주 반복하다 보면 그 어떤 자료보다도 강력한 나만의 시험 대비 자료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나는 이를 아래 사진과 같이 수업별 파일을 만들어 각각 정리했다. 이처럼 복습은 예습과 수업 필기에서의 키워드 분석이 잘 이루어졌다면, 구어체를 문어체로, 필기 내용을 수업별로 정리 정돈하는 과정만 거친다면 간단히 완료할 수 있다.



〈사진 4〉 수업별 기출 자료 & 노트 필기를 분류하고 정리

#### 5. 시험기간 공부: 100% 성공하는 나만의 3단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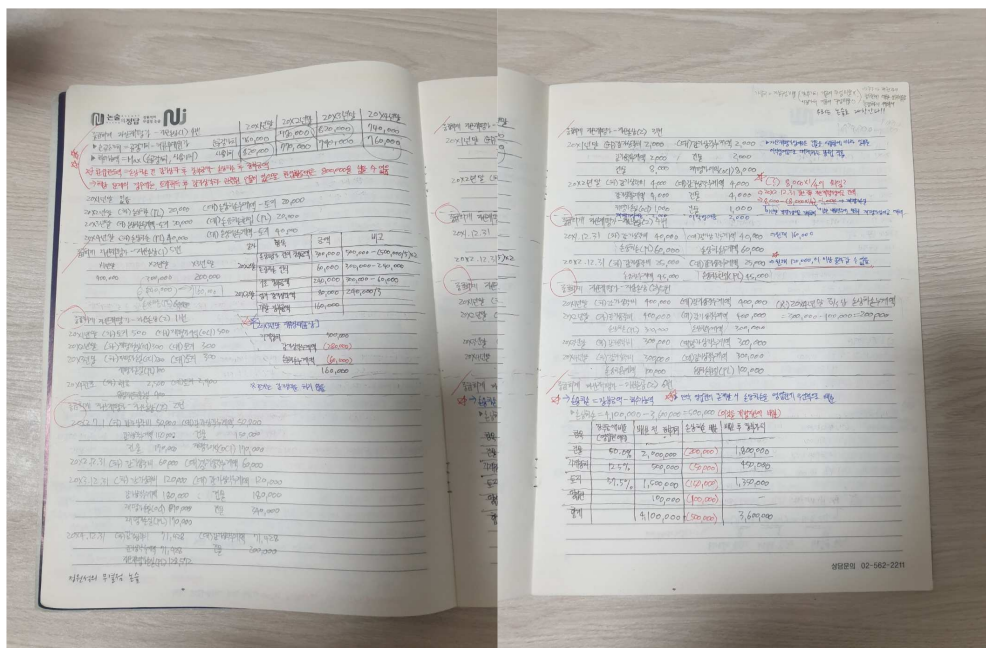
복습까지의 과정을 통해 <사진 4>와 같이 자료가 모였다면 축하의 말을 건네고 싶다. 우리는 '키워드 분석'의 힘을 통해 예습, 수업 필기, 복습의 과정을 거쳐 강력한 시험 대비 자료를 확보했다. 이제 시험 전까지 해당 자료와 기출을 토대로 필자가 제시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면 완벽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3단계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단계:** 과목별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수업 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본다. 시험이 시작될 무렵이 되면, 이전의 예복습과 수업 필기를 열심히 진행했다라도 앞부분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필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며 까먹은 부분을 다시 메모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핵심은, 눈으로만 훑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듯이 또박또박 소리내서 말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면서 읽는 것이 눈으로만 읽는 것 대비 장기기억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다. 즉, 이 1단계는 장기기억으로 넘어간 시험 답안지를 머릿속으로 복사해 읊기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2단계:**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푸는 단계다. 여기서의 핵심은, 기출 자료를 노트북이나 태블릿으

로 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쇄된 종이를 토대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트북 또는 태블릿으로 문제를 푸는 것과 종이로 직접 문제를 푸는 것은 얼핏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나 실제로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기출 위주 공부의 단점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기출에만 지나치게 최적화되어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유형 출제와 같은 문제 자체의 변화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 종이냐, 기계냐와 같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나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종이로 풀 때보다 기계로 풀 때가 성적이 더 잘 나왔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시험이 시험지 풀이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시험 대비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환경에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 초회차 기출문제 풀이이므로 시간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넉넉하게 풀도록 한다.

또한, 2단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풀이식을 인쇄된 기출문제지가 아니라 연습장에 따로 받아적는 것이다. 그 다음 채점 또한 시험지가 아니라 연습장을 통해 채점하고 이를 오답노트로서도 사용해야 한다. 2단계에서의 기출 풀이는 처음 기출문제를 푸는 단계인 만큼, 자신이 취약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는 단계이다. 이 때, 틀린 문제들을 확실히 알고 부족한 개념들을 숙지하여 취약점을 확실하게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설을 단순히 눈으로 훑는 것보다는 연습장 위에 해설을 직접 적어 취약한 문제 유형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만들었던 ‘키워드 분석’ 필기들을 300% 활용해 약점 없는 나를 만들어가보자.



〈사진 5〉 기출문제를 연습장에 옮겨 풀 뒤, 채점 및 오답풀이의 과정까지 거친 부분

**3단계:** 2단계에서 풀어보았던 기출문제를 한 번 더 푼다. 여기서 다른 점은 2단계와 달리 3단계의 기출문제 풀이는 시험지에 직접, 시간도 시험 시간과 똑같이 채는 등 시험과 완벽히 동일한 환경에서 기출 문제 풀이에 임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 이미 푼 기출 문제를 3단계에서 다시 풀으로써 회독의 효과가 생겨 시험에 더 강해진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시험 환경에

도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것은 덤이다. 또한 우리는 예습 때 3개년치 기출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20문제짜리 기출문제를 쓰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60문제라는 방대한 양을 가지고 2, 3단계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험 유형들을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만약 3단계에서 틀리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은 특히 취약한 문제 유형이므로 ‘키워드 분석’을 통해 만든 수업 필기와 2단계에서 만들었던 풀이 노트를 병행해 참조하며 대비하면 된다. 이 다음부터는 시험 전까지 1~3단계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 N회독을 실행하면 된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어떤 시험을 마주해도 끄떡없는 강력한 ‘나’를 만들 수 있다.

## 결론

지금까지 소개한 ‘키워드 분석’ 공부법을 정립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원래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있었기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노력과 시행착오를 통해 지금의 나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시의 나처럼 성적이 오르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학우들이 분명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기서 변화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옮기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했듯이 성공의 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던가? 수상을 하게 됐을 때 ‘키워드 분석’ 공부법을 보고 스스로를 도우려 한 발자국 걸어 나가는 많은 상명대학교 학우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튜터와 튜티 모두가 성장하는 ‘상명튜터링’

지능데이터융합학부 22학번 신지우

저는 2023년도 1학기 상명 튜터링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튜터링 과목은 튜티들이 상명대학교에서 필수 교양을 들으면서 접하게 되는 파이썬으로 선정하였으며 파이썬 튜터링 활동의 튜터로서 다양한 전공의 튜티들과 약 두 달간 함께 파이썬을 학습하였습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준 결과 상명튜터링 참여팀 중, 대상을 수상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엑스퍼트 에세이에서는 제가 참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상명튜터링 활동을 추천하면서 앞으로 이 활동에 참여할 예비 튜터분들께 튜터링 활동을 진행하는 세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볍게 제가 튜터로 있었던 파이썬 파트너스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파이썬 초심자인 비전공자 튜티들이 1학기 또는 2학기에 배울 파이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팀원들은 무용예술학과, 행정학부, 융합경영학과, 전기공학전공, 휴먼지능정보공학과 등 여러 전공으로 이루어졌으며 파이썬 튜터링은 비전공자의 예습용이자 전공자의 복습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팀 소개를 마치고 튜터링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유문서 이용하기 - ‘노션’

저는 튜터링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공유 문서를 이용하였으며, 다양한 공유 문서 중에서도 ‘노션’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양한 공유 문서 중에서도 노션을 선택한 이유는 인터페이스가 간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제공되거나 공유받을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문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션에는 튜터링 주차별 강의 정보와 강의 자료, 강의 요약, 제출받은 과제와 피드백 등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차	날짜	주제	실습
1주차	2023년 4월 9일	프로그래밍 언어 소개 파이썬 설치와 실행 파이썬 용어와 출력서식의 이해 파이썬 연산 파이썬 정단점	• 파이썬 설치 및 실행 • 코드 입력과 실행 • 중괄호 연산 • 줄로 계산 • 유효 계산 • 변수 사용 • 변수 사용 연산
2주차	2023년 4월 16일	변수의 선언과 사용 기본 데이터형 연산자의 이해 계산기 프로그램 제작과 확장 동전교환 프로그램	• 산술 관계 논리 연산자 사용 • 계산기 프로그램 작성 • 파이썬 파일 만들고 저장 • 동전 교환 프로그램 알고리즘 작성 및 코드 구현
3주차	2023년 4월 30일	기본 for문 중첩 if문 if문 else문 기본 for문	• 학 풀수 계산 프로그램 • 학점 계산 프로그램 • 가계부로 알리기 프로그램 • 리스트 안에 없는 숫자 찾기 프로그램 • for문을 활용한 합계 구하기 프로그램 • 500과 1000 사이의 홀수 합계 계산 프로그램 • 키워드로 입력한 값까지의 합계 계산 프로그램 • 시작값, 끝값, 증가값을 입력받아 계산 하는 프로그램
4주차	2023년 5월 14일	기본 for문 복습 중첩 for문 while문 break문 continue문 구구단 출력 프로그램	• 중첩 for문 반복 이해를 위한 구구단 출력 • 2단~9단 구구단 출력 • 가로를 배열된 구구단 출력 • while문 이해를 위한 문자열 출력 • for문을 활용한 합계 구하기 프로그램 while문으로 바꾸기 • 무한루프를 사용한 두 수의 합계 계산 프로그램 • 위 프로그램을 확장: 시작값, 종료값 프로그램
6주차	2023년 5월 21일	for문 while문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해 45자 시퀀스 과정과 피드백 딕셔너리 이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해 반복문과 자료구조의 응용방법 이해: 공식 합 출력 ...	• for문 while문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 딕셔너리 생성, 수정, 삭제 코드 실행 • get(), _getitem(), _len(), _keys(), _values(), 딕셔너리 정렬 코드 실행 • 공식 합 출력 프로그램 작성
7주차	2023년 5월 28일	파이썬 기초 for문 while문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문자열 문자열 조작 함수와 활용 입력된 문자열을 가위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임의의 위치에 임의의 색과 크기로 문자를 쓰는 거북...	• 문자열 기본 확인 코드 • 문자열 반복 코드 • 문자열 길이 세기 함수 확인 • 문자열의 모든 글자 뒤에 5를 붙여 출력하라 • 입력된 문자열을 가위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 문자열이 끝으로 끝나지 않으면 끝으로 • 문자열 앞뒤의 특정 문자 삭제 문자열 중간 • 글자 변경 • 문자열 입력받아 그 중 5를 5로 변경하는 • 단/실/일 형식으로 문자열을 입력받아 10만 • 다음 그래픽에서 문자열 입력, 입력받은 문 • 로 임의의 위치에 거북이 가는 프로그램
8주차	2023년 6월 4일	함수의 개념과 작성법 사용법 지역변수 전역변수 함수의 반환값 매개변수 모듈 개념과 사용법 함수 심화 / 로트 주입 프로그램 임의의 거북이 프로그램 모듈 출력	• 거북이를 하는 과정의 코드 확인 • 손바 3면이 연속해서 들어온다고 한을 의미. • 차피 차피 프로그램 작성 (함수 개념 응용) • 연속해서 양쪽 손바(8, 0, 3)를 거북이 • plus 함수의 정의 및 사용 • *args, **kwargs, None, None를 하는 계산기 함 •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선언 범위 확인 코드 • 글로벌 영역에 가용 확인 코드 • 반환값이 없는 함수, 반환값이 여러 개인 함 • 매개변수의 개수를 지정해 전달하는 방법: 코드

<그림 1> 파이썬 파트너스 노션 메인 페이지 - 활동내역 총 정리본

**튜터링 일정 및 활동 내역**

상영 튜터링 일정입니다.

주차	날짜	주제	실습
1주차	2023년 4월 9일	프로그래밍 언어 소개 파이썬 설치와 실행 파이썬 용어와 출력서식의 이해 파이썬 연산 파이썬 정단점	• 파이썬 설치 및 실행 • 코드 입력과 실행 • 중괄호 연산 • 줄로 계산 • 유효 계산 • 변수 사용 • 변수 사용 연산
2주차	2023년 4월 16일	변수의 선언과 사용 기본 데이터형 연산자의 이해 계산기 프로그램 제작과 확장 동전교환 프로그램	• 산술 관계 논리 연산자 사용 • 계산기 프로그램 작성 • 파이썬 파일 만들고 저장 • 동전 교환 프로그램 알고리즘 작성 및 코드 구현
3주차	2023년 4월 30일	기본 for문 중첩 if문 if문 else문 기본 for문	• 학 풀수 계산 프로그램 • 학점 계산 프로그램 • 가계부로 알리기 프로그램 • 리스트 안에 없는 숫자 찾기 프로그램 • for문을 활용한 합계 구하기 프로그램 • 500과 1000 사이의 홀수 합계 계산 프로그램 • 키워드로 입력한 값까지의 합계 계산 프로그램 • 시작값, 끝값, 증가값을 입력받아 계산 하는 프로그램
4주차	2023년 5월 14일	기본 for문 복습 중첩 for문 while문 break문 continue문 구구단 출력 프로그램	• 중첩 for문 반복 이해를 위한 구구단 출력 • 2단~9단 구구단 출력 • 가로를 배열된 구구단 출력 • while문 이해를 위한 문자열 출력 • for문을 활용한 합계 구하기 프로그램 while문으로 바꾸기 • 무한루프를 사용한 두 수의 합계 계산 프로그램 • 위 프로그램을 확장: 시작값, 종료값 프로그램

### 2주차 요약

- 변수는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개념이다.
- print()는 괄호 안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이다. 여러 개를 출력하려면 print()로 구분한다.
- >>> 프롬프트가 표시되고 한 줄씩 입력하는 화면을 대화형 모드라고 하며, 메모장 같은 창에서 여러줄 입력하는 것을 스크립트 모드라고 한다.
- 파이썬 코드를 저장한 파일의 확장명은 .py이다.
- 스크립트 모드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려면 f5를 누른다.
- input() 함수는 키보드로 값을 입력받는다. 단, 모두 문자열로 인식한다.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려면 int() 함수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 긴 프로그램은 변수 선언 부분, 함수 선언 부분, 메인 코드 부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코딩하면 좋다.
- 함수는 다음 형식으로 코딩한다. def 다음 줄부터는 줄을 맞춰 들여쓰기를 해야 한다.

```

def 함수명(매개변수):
    global 사용할 전역 변수
    # 0이 부분에 함수 내용물 코딩

• 1은 한 번의 길이가 200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2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좌표까지 거북이가 선을 그린다.

#1
myT = turtle.Turtle()
myT.shape("turtle")

for i in range(0, 4):
    myT.forward(200)
    myT.right(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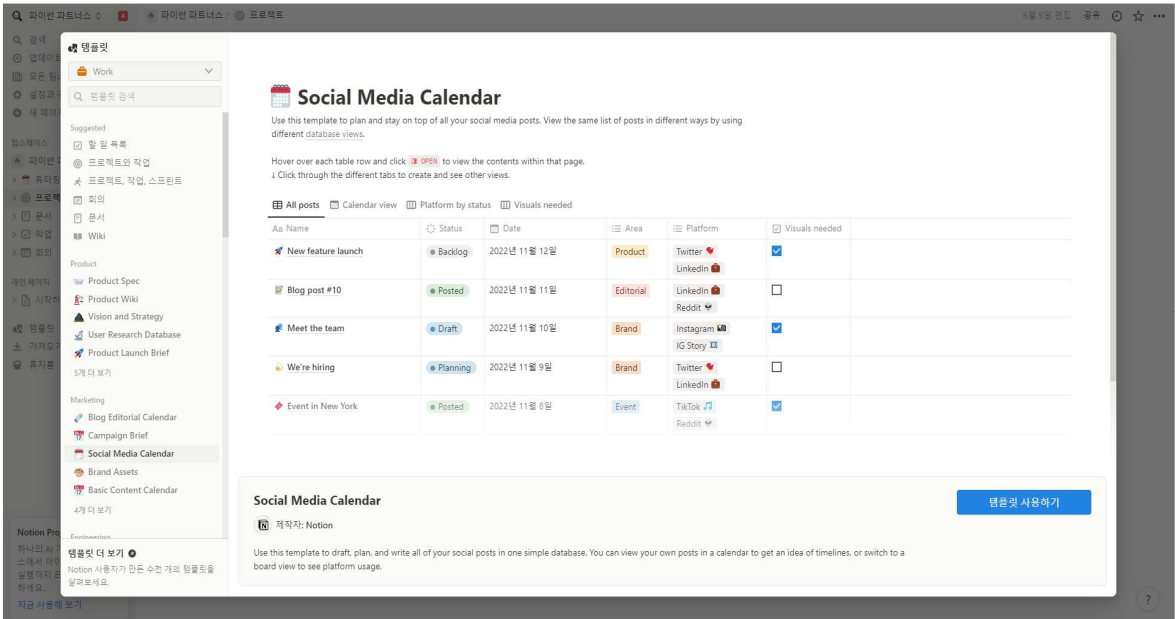
myT.done()

#2
def screenLeftClick(x, y):
    global r, g, b
    turtle.pencolor((r, g, b))
    turtle.pendown()
    turtle.goto(x, y)
    
```

<그림 2> 튜터링 주차별 상세문서

<그림 1>은 제가 작성한 노션 문서의 화면입니다. 튜터링 강의 날짜와 주제, 실습 내용들을 한 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1~8주차에 걸쳐서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과 적용을 중심으로 학습하였습니다. 비전공 초심자인 튜터를 고려하여 파이썬의 설치부터 시작하였고, 변수와 연산자, 조건문과 반복문 그리고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등의 다양한 자료구조와 문자열 조작의 이해와 함께 함수 작성과 사용 방법까지 학습하였습니다. <그림 1>에서 <그림 2>와 같이 주차별로 상세 문서를 열 수 있습니다. 상세 문서에는 강의 자료와 요약 내용, 튜터

들의 과제와 그에 대한 피드백 등을 담았습니다.



<그림 3> 메인 페이지로 사용한 템플릿

<그림 3>은 <그림 1>과 <그림 2>의 튜터링 문서에 활용한 템플릿입니다. 노션의 템플릿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Social Media Calendar 템플릿을 제 목적에 맞도록 수정해가면서 원하는 문서를 쉽고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제공된 다양한 템플릿이 많고,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템플릿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튜터분들께서도 각자의 목적에 맞는 템플릿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튜터링 활동 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 구글 설문지 사용하기

저는 튜터링을 하면서 구글 설문지를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튜터링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집할 때 사용하였으며, 한 주차에 나가는 파이썬 진도의 양이나 이론과 실습의 비율을 조정할 때도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였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채팅으로 의견을 모아도 되지만 튜터링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한 번에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야 했으며, 제가 생각해본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튜티들의 새로운 의견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해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림 4>가 제가 튜터링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활용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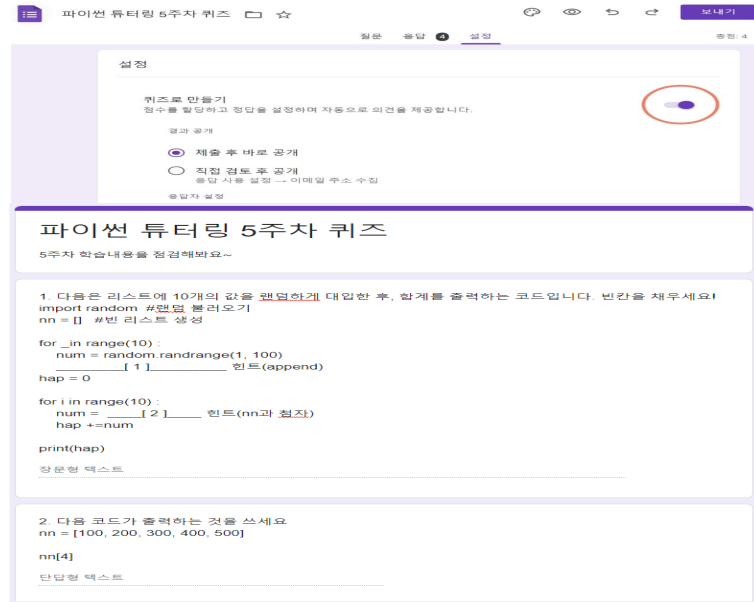
### 파이썬 튜터링 설문조사

상영 튜터링을 진행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b>파이썬 경험</b>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기초고양 <input type="radio"/> 전공강의 <input type="radio"/> 기타 방법으로 학습 경험 있음	<b>수업 방식</b> <input type="radio"/> 이론 수업 위주 <input type="radio"/> 실습 수업 위주 <input type="radio"/> 이론+실습
<b>튜터링 참여 목적/목표</b> <input type="radio"/> 기초고양 강의 수강 전 파이썬 경험 <input type="radio"/> 기초고양 수준의 파이썬 실력 쌓기 <input type="radio"/> 전공 강의 수준의 파이썬 실력 쌓기 <input type="radio"/> 기타	<b>과제의 양(수업 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과제입니다.)</b> <input type="radio"/> 0개 (과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input type="radio"/> 1-2개 <input type="radio"/> 2-3개 <input type="radio"/> 3-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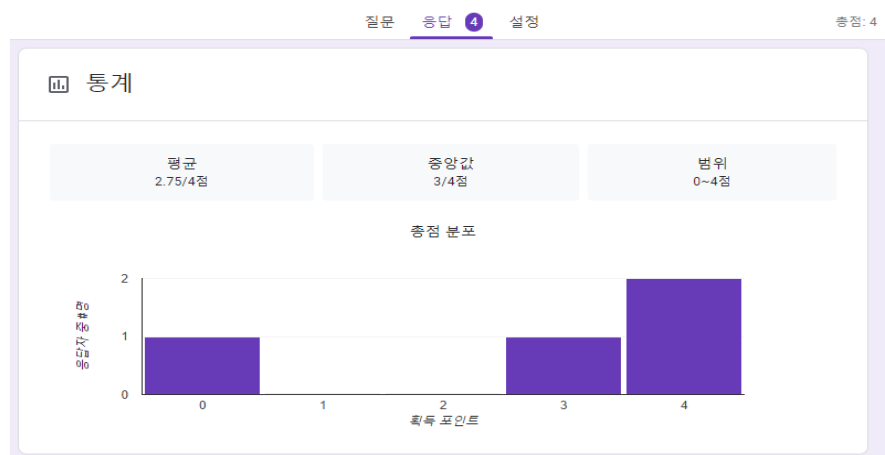
<그림 4> 구글 설문지 활용 이미지

던 설문지입니다. 각자의 목적을 파악하고 원하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하였으며, 이후에 실제로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이론과 실습의 구체적인 비율을 조정해 나갔습니다.



〈그림 5〉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구글 시험지

<그림 5>는 위에서 사용했던 구글 설문지의 설정을 바꾸어 시험지로 바꾸는 모습과 실제로 작성했던 퀴즈 이미지입니다. 튜터링 수업이 끝난 후 시험지 링크를 공유하여 언제든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튜터들이 제출한 답은 응답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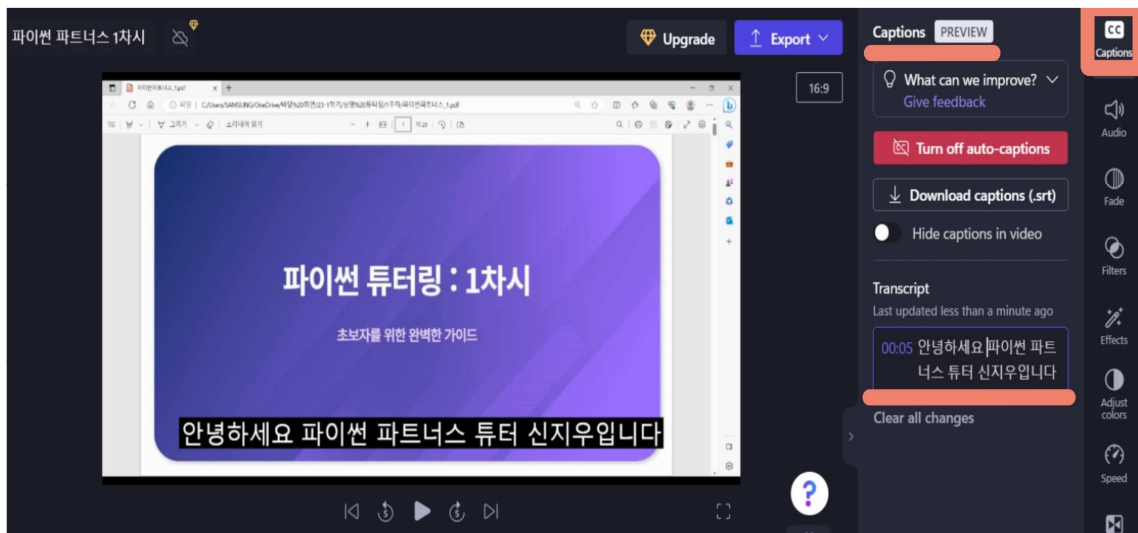
〈그림 6〉 구글 설문지 응답 통계

응답 페이지에서는 <그림 6>과 같이 제출된 응답들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문제별 답변들을 모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응답 페이지에서 답변들을 확인하면서 튜터들의 이해

도를 파악하고 차주에 관련 내용을 보충하거나 풀이 과정에 대해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튜터분들도 구글 설문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튜터링에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3. 대체 과제 출석 튜티에게 영상 제공하기

튜터링 활동을 하다 보면 튜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강의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Clipcham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였습니다.



<그림 7> Microsoft Clipchamp 자동 자막 편집

<그림 7>은 사용 모습을 재현한 이미지입니다. Captions 메뉴를 눌러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할 수 있어 편리했고 확인되는 자막을 바로 수정Clip할 수 있어 빠르게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Clipchamp는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 번거롭게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으며, 만약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Microsoft 앱에서 설치 가능하니 영상을 제공할 튜터분들께서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상명튜터링 소감

상명튜터링 활동은 저의 작년 1학년 생활을 도전 없이 무의미하게 보낸 것 같아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청했던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남들 앞에 나서서 발표하는 것을 꺼리고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엇인가에 도전해 보고 싶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튜터링 활동은 편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주 2시간씩 강의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예상했지만 강의를 구성하는 것에서

부터 마냥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었고 점차 성장하는 튜티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또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더 공부하면서 저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전엔 모호했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도 있었으며, 초반에는 부담스러웠던 매주 2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튜터링 활동은 튜티뿐만 아니라 튜터도 성장하게 하는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꺼리셨던 분들, 튜터로서 튜티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상명 튜터링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2023학년도 1학기

# 상명 엑스퍼트 공모전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미래백년관(R) 404호  
전화: 02-2287-5427

 SANGMYUNG

상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